

간/병/제/도/의/사/회/적/책/임/확/보/를/위/한/공/청/회

환자간병, 가족의 책임인가 병원과 국가의 책임인가

일시 : 2003년 11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과학학생회협의회/ 다함께 중부모임/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민중의료연합/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인권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회

간/병/제/도/의/사/회/적/책/임/확/보/를/위/한/공/청/회

환자간병, 가족의 책임인가 병원과 국가의 책임인가

일시 : 2003년 11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 중부모임/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민중의료연합/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인권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회

차례

사회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한정희

■ 발제1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확보투쟁의 의미

3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병인 운영위원장 김 정순

■ 발제2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14.....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 중규

■ 지정토론1 건강세상네트워크

27..... 강주성 대표

■ 지정토론2 서울여성노동조합

30..... 정양희 상담센터장

■ 지정토론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 지정토론1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34..... 윤연옥 사무국장

■ 지정토론1 비정규직노동센터

..... 조진원 소장

■ 첨부자료

- 10월28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문

- 서울대 간병인 투쟁 선전물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확보투쟁의 의미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병인 운영위원장
김 정 순

1.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의 역사와 운영현황

○ 서울대학병원에는 간병인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1988년 4월로 기록되어 있다. 88년 이전에는 환자 스스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였고 소개시에 친한 사람끼리 연락하여 주는 등 체계없이 운영되었다.

○ 88년 당시 서울대병원 원장 한○○원장은 부친 때문에 간병인을 채용해 보고 간병인의 교육 및 책임,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당시 여러 유료소개소에서 들어온 간병인들로부터 문제들이 발생되자 병원에서 책임관리 및 교육하는 『서울대학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1988년 4월에 설립하였다.

○ 1988년 7월 첫 공개모집이 시작되었고 공개모집 조건은 다른 유료소개소보다 복잡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다. 중졸이상의 학력, 신원보증서, 이력서, 적십자회 교육수료증, 재정보증서, 사진, 건강검진 증명서 15여가지의 서류에 갖추어야 채용이 되었다. (대부분의 유료소개소는 교육수료증,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이다. 그 후 무료소개소는 15년동안 운영되어 왔다.

○ 병원측에서는 무료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전화 그리고 운영관리를 할수 있는 간호사 1명을 계약적으로 두었다.

간병인의 교육은 년 2회 기본교육으로 주로 간호부에서 담당하였으며 병원구조 및 환자간병시 필요한 교육 및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의 내용으로 다루어 졌고 매월 1회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소개소에서는 개개 간병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었으며 서울대병원에 적합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환자가 간병인을 요청할 시 환자 상태에 적절한 간병인을 연결하여 줄수 있었다.

서울대 간병인 무료소개소에 소속된 간병인들은 다른 유료소개소나 파견업체의 간병료(5만원-7만원)보다 낮은 45,000원을 받고 일하였는데 이는 중간착취료가 없는

무료소개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간병인과의 문제발생시 이를 적절히 해결하고 개선할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병원측 관리자들의 가족이 입원을 하면 서울대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이다. 결국 무료소개소는 간병인들에게도 환자에게도 좋은 역할을 해왔다.

○ 1988년 무료소개소를 설치후 5명의 사무실 관리자가 교체되면서 간병인의 관리 역할을 하였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사무실 관리자까지는 간병인의 관리와 교육 역할을 성실히 하였고 4번째 사무실 관리자가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하고 유료소개소를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을 간병인들에게 흘림으로서 계약만료전에 병원 측으로부터 그만두게되었다고 간병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움직임 이후 2001년 말부터 간병인들은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후 새로운 관리자로 온 5번째 관리자가 오고 나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채용하던 무료소개소 간병인 모집도 없어지고 교육도 진행이 안되었으며 문제 발생시 중재하는 역할보다는 간병인을 몰아세우고 시말서를 쓰게하는 등 간병인 탄압이 본격화 되었다. 이로인해 200여명정도 운영되던 간병인수는 50여명으로 줄어들고 자애와 제니엘이라는 유료소개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 서울대 병원에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를 제외하고도 7-8개의 유료소개소 및 파견업체에 소속된 간병인들이 간병을 하고 있다. 이 중 몇개는 병원의 관리자급과 관계를 가진 업체도 있으며 그 업체에 소속된 간병인들이 다른 간병인들에게 유세를 부리기도 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간병인 조합원들이 투쟁을 하자 유착관계가 있는 업체를 제외한 다른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이 문제가 잠잠해지면 유착관계가 있는 소개소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2. 간병인의 노동조건 및 인권실태

○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채 24시간을 근무하고 일당 50,000원(2003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45,000원)을 받는다. 이는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 20,080원에도 못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표1> 최저임금과 간병인 임금현황비교

	간병인	비교(2003년기준)
24시간 근무시 일당	50,000원	
8시간 근무시 일당	16,666원	최저임금 일당 20,080원
226시간 근무시	470,814원	최저임금 월 567,260원

○ 최악의 장시간 노동시간

간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한다. 더군다나 토요일에는 근무를 마치기전에 해야할 일(환자목욕,시트교환 등)을 해놓고 보호자와 교체하며 일요일 2시에 들어와서는 오전에 못다한 일까지 한다고 한다. 결국 일주일 연속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를 인정하여 2001년 이전의 무료소개소 당시에는 토요일 2시에서 일요일 2시 외출시간(휴일)도 일당계산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 밥먹는 시간외에 환자결을 떠날 수가 없다.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간병인들이 6일 근무후 1일 쉬지만 그마저도 집에 돌아가면 그간에 밀린 6일간의 가사일과 앞으로의 6일 동안의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이다.

○ 직업병에 시달려도 인정못받는 노동자

간병인들은 한환자가 끝나면 다른 환자로 계속적으로 병원생활을 하므로 병원의 안좋은 환경(공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아픈사람을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배나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으며 과체중환자나 무의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 대부분 혼자 하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근육통이 심하고 심지어는 디스크에 걸리며, 자궁하수증, 장기적인 병원 생활로 햇빛을 보지 못해 칼슘부족으로 관절이 부어지고 병실 실내 건조로 해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인후염을 대부분 앓고 있다.

심지어는 간병인이 맡은 환자가 간염,결핵 등 감염성질환이어도 간병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이 모든 질병들이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임이 분명하기만 산재처리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 사람취급도 못받는 간병인.

우리 간병인들은 밤새 환자의 가래를 뽑기, 대소변을 치우기, 튜브식사, 욕창치료, 약물주입, 목욕시키기, 옷갈아입히기, 침대정리 등 의료인력이 해야할 일부터 남이 하기 힘든 일까지 합니다. 밤이면 환자를 돌보느라 잠 못자고 낮에 보호자나 방문객에게 앓을 자리를 내어주고 나면 피할곳이 없어 배선실로 갔다가 수간호사를 만

나면 “거기에 앉지마라” 복도에 서면 ‘왜 복도에 서있느냐’ 오물실에 가면 ‘여기에 왜 있느냐’ 합니다.

6월26일 노사협의회에서 병원측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대한 인상(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5천원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다른 유료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이미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받고 있음)과 휴게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3.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이유는?

서울대병원장은 무료소개소 폐지하고 사설 영리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병원장을 비롯하여 병원관리자들이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이 훨씬 소속감도 높고 중환자를 잘 돌보는 등 잘 해왔다고 인정했던 점과도 정면 위배된다. 이러한 공감속에서 9월 17일 병원장이 <유료소개소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대병원 간병인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유료업체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으나, 무료소개소 폐지 당시 간병인 200명 중 50여명만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소속이었다. 2001년 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0명이던 인원을 계속 줄이고 사설유료업체(자애, 제니엘 등)로 대체하여 결국 50여명으로 줄였던 것이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의 경우 공채 때부터 자격을 엄격히하고 간호부에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해왔으며, 환자보호자나 병원직원들로부터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이 간병료도 더 저렴하면서 훨씬 간병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은 이미 병원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결국 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 한 진짜 이유는 병원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1) ‘병원이 간병의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이며, 2)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1) ‘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

병원장은 홍보물을 통해서도 공공연히 이제부터 간병업무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유료업체에서 지게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료소개소는 간병인 선출과정에서부터 재교육, 관리 어느 면에서도 무료소개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는 총무과에서 공채를 해서

간병인 자격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정규 간병인 교육과정을 거친 자에 한해 선정하였다. 또한 병원 간호부에서 년 2회 정기교육과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유료소개소는 교육과정이나 질에 대한 관리는 거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병원이 엄선한 우수 업체라고 선정한 업체 중 한 곳은 불법적인 임금착취로 노동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유료소개소 소속 간병인들 스스로 교육이라고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간병업무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당연히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400만원 비용이면 무료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도, 비리의 온상인 유료소개소를 끌어들여 모든 간병업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2)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진 탄압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는 6월 말부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지부 조합원인 간병인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장은 일언반구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9월 1일자로 무료소개소를 폐지하고는 그것도 며칠 지나서 4일자 우체국 소인으로 개별적으로 간병인들에게 우편통보를 하였다. 이는 10년이상씩 일해온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단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짓밟는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 환자보호자 서명, 병원장 항의방문, 병원로비 철야농성 등 투쟁의 결과로, 결국 9월 17일 병원장은 △ 일방적인 업체 선정 중단, △ 유료소개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간병인조합원 자체 무료소개소 운영 인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무료소개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무료소개소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은 마무리를 위한 9월 30일 병원장 면담을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면담 일정 취소통보와 함께 9월 17일 약속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1일 ‘아비스’와 인력파견업체인 ‘유니에스’ 두 유료업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10월 1일부터 60대 노인인 간병인 대표의 단식투쟁과 시계탑 건물앞 노상투쟁, 병원 현관앞 농성투쟁 등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원장은 10월 1일 병원장을 만나러 간 노조간부 및 간병인대표들을 남자직원을 동원하여 개 끌듯이 끌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폭행까지 사주하였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13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거기에 어처구니없이 농성중인 간병인들에게 병원출입을 할 때마다 1천만원씩 벌금을 내도록 출입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어 10월 1일 유료소개소 선정이후 수간호사 및 교수까지 동원하여 노동조합원인 간병인만을 골라서 탄압하며 유료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시키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4. 유료소개소 폐해 (사례중심)

유료소개업소나 및 유료파견업체는 영리가 목적이다. 간병인들을 잘 교육하고 관리하여 환자를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유료소개소에 소속된 간병인들은 제대로 추가교육을 받는 곳이 없으며 간병인을 교체하여 그 대가로 웃돈을 받고 기존에 일자리를 못하고 있는 간병인이 있어도 새로운 간병인들을 가입시켜 입회비를 챙기는 것이 주 목적이다. 환자를 볼모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인 간병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부분에 있어서 서울대병원은 가장 좋은 돈벌이의 대상일 것이다. 중증의 환자가 많아 간병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서울대라는 국가 최고 병원에 자신의 소개소 및 업체 간병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큰 홍보가 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유료업체들의 폐해를 그대로 볼수 있다.

○ 입회시 25만원, 월회비 5만원을 받으며 일감을 받지 못해도 월회비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자애협회에 소속된 ○씨는 교육받은 뒤 협회에 가입하여 5일밖에 일 못하였다. 3개월이 지나도 일을 안주었으며 할 수 없이 다른 곳(메디칼)로 가입했지만 메디칼에서 입회비를 내고 입회하였는데 일감을 안주어 알아보니 자애협회에서 밀린 회비를 내기 전에는 메디칼에서도 일을 주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결국 돈을 빌려다 자애협회에 내고 나서야 일을 받았다.

○ 간병인 ○씨의 경우 “유료소개소 측은 간병인 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입비와 월회비를 꼬박꼬박 받으며 일이 없을 때도 월회비는 내야한다”면서 “장기환자를 고정적으로 맡기 위해서는 정해진 회비 이외에 웃돈을 직원에게 쥐어주어야 한다” 또한 “소개비를 더 챙기려고 새 간병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보호자를 속인 뒤 간병인을 자주 교체하기고 하며 심지어 업체의 감독이 병원을 순회하면서 간병인으로부터 웃돈을 걷고 명절이면 간병인들이 돈을 걷어서 병원에 상납해야 합니다

○ ○씨는 간병인을 하기위해 적십자회의 교육을 받으러 갔었다. 그때 강사가 하는 말이 교육은 책임이지만 취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어느 회원은 입회해놓고 몇 달간 일을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몇 달동안의 회비 밀린 것을 다 물어내라고 하는데 물지 못하자 재산 가압 신청이 들어왔다”며 많은 간병 회사들중에 잘 선택하라고 하였다.

○ 현재 서울대 무료소개소를 폐지하고 병원측이 선정한 유료 파견업체중 하나인 아비스 간병협회는 간병인들을 상대로 비리를 하여 노동부에 2번이나 고발된 사례가 있는 곳이다. 그 후에도 장기환자를 알선하며 뒷돈거래가 있었으며 약자인 간병인 상대로 강매(티셔츠 등)를 하거나 개인적 여행이나 경조사시 은근히 알리며 알아서 돈을 바치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5. 왜 우리는 간병인 무료소개소 확보투쟁을 하는가?

○ 현재와 같은 간병제도가 영리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의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료소개소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간병업무 없이는 병원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이며, 병원인력이 부족한 우리의 의료현실속에서는 환자의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체계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간병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제도화하고, 간병인력 또한 직접고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과도기적 과정에서는 무료소개소의 운영을 통해 간병업무의 교육 및 질관리를 보장하고 유료소개소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간병인의 무료소개소 확보투쟁은 최소한 요구인 것이다.

○ 아래의 표와 같이 무료소개소와 유료소개소를 비교해보면 간병인, 환자, 의료인, 병원측 모두의 측면에서 무료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유료소개소보다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유료소개소로 하려는 것은 오로지 병원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번 무료소개소 폐지과정에서 보여준 서울대병원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인 행위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인권탄압 노동탄압을 중단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표2> 무료소개소와 유료소개소(파견업체)

항목	무료소개소 (서울대)	유료소개소(파견업체)
간병인 자격	중졸이상의 학력, 교육수료증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 이력서, 건강검진증명서(서울대병원진료) 사진등 15가지의 서류제출	건강진단서, 교육수료증,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입사후 교육	정기적으로 년2회 병원자체교육으로 주로 간호부에서 담당 추가로 월 1회 교육 교육내용 (병원구조, 물품관리, 환자간병시 간병내용,인성교육 등) 2년마다 교육수료증 재갱신	협회에서 년 1회 그외 없음
관리	사무실 관리 : 간호사(계약직) 1명 중간 소개역할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인 연결/ 민원처리	없음
간병료	45,000원 --> 50,000원(2003년 8월부터) (환자에게 웃돈 요구하지 않음 요구하면 시말서 써야함)	5만원에서 7만원 (환자에게 웃돈 요구)
소개료	없음	입회비 25만에서 35만원 월회비 5만원 (일이 없어도 매월납부) 협회 관리자에게 뒷돈을 주어야 장기 환자 등 소개알선을 잘 해줌 명절이나 경조사시 간병인들이 상납 하도록 압력. (소개를 댓가로)
건강진단	매년 1회 건강검진 서울대본원,보라매병원에서 진단	매년 1회 건강검진 보건소 등 모든병의원 건강검진결과 문제 일으키면 대부분 도망감
의료사고시	관리실에서 조사후 처리 (간병인에게 전가됨)	소개소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결.
산재사고시	개별처리	개별처리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내용 잘 모름)	없음

[별첨] 서울대 간병인 무료소개소 투쟁경과

○ 9월 1일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폐지이후 간병인조합원과 서울대병원지부가 중심이 되어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병원장항의면담, 병원 로비 철야농성, 단식투쟁, 현관앞 농성, 환자보호자 선전전, 서명운동, 국회앞 1인시위 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투쟁의 결과로 9월 17일 병원장이 일방적인 업체 선정 중단과 사설영리업체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 간병인 조합원 자체 운영 인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9월 30일 노동조합에서 무료소개소 등록필증 등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가져 저가자, 병원장은 당일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고 17일 한 약속을 전면백지화하였다.

○ 10월 1일 일방적으로 사설영리업체 (아비스, 유니에스)를 선정 통보한 후 서울대병원 간병인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을 하였다.

수간호사, 교수까지 나서서 간병인에게 사설영리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하다가 안되자, 환자보호자에게까지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쓰면 치료에 지장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 노동조합은 병원장 약속이행과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10월 1일부터 간병인 대표의 단식농성과 선전전, 국회앞 집회 등 투쟁을 해 오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장으로서 간병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을 '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 '직업의 선택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 그동안 비정규 공대위,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여성노조, 참여연대 등에서 성명서 또는 질의서를 발표하여 서울대병원 간병인투쟁을 지지해 왔으며. 그동안 연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10월 28일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사회 쟁점화 및 투쟁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

○ 간병인 조합원들은 병원현관앞 서명운동 및 선전전, 국회앞, 교육부앞 1인시위, 선전전, 병원로비철야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투쟁 일지

9월 1일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소장 박용현)를 9월 1일자로 폐지신고함.

9월 5일 : 서울대병원 간병인은 4일자 우체국 소인으로 된 개별 통보서를 받음.

9월 6일 : 간병인대표 및 서울대병원지부 간부, 간호부장실 항의면담

9월 8일 : 간병인 대표와 서울대병원지부 간부, 병원장 항의면담.

(병원장, 행정처장에게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거냐")

9월 9일 : 서울대병원지부 노사협의회 실시

- 다른 노사협의회 안건을 모두 없애고 간병인무료소개소 폐지 건만 다룸.

- 병원은 "교섭 대상아니다" 주장함. .

- 간병인 조합원 20여명 참관

9월 13일 : 병원 현관앞 환자보호자 서명 및 선전전, 스틱카 붙이기
(환자보호자, 전폭적인 지지 분위기)
병원 2층 로비 철야농성 돌입

9월 17일 : 병원장 면담 및 실무협의

- 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 하지 않겠다.
- ② 사설 영리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간병인 조합원의 무료소개소 자체 운영을 인정한다. 등에 대해 병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고 나옴.

9월 22일, 23일 실무협의

9월 23일 보건의료노조, 간병인 무료소개소 운영계획안 제출함.

9월 29일 보건의료노조, 병원에서 요구한 노동조합 운영계획안 추가 자료를 제출함.

9월 30일 보건의료노조, '노원일일무료취업센터 무료소개소' 등록필증 서류를 제출함. (병원측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전달)

병원측, 노동조합에 오후 4시 예정된 병원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함.

10월 1일 병원, 사설영리업체 두군데 (아비스, 유니에스)를 선정 통보함.

▷ 각 병동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 업체이외에 다른 간병인을 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노원일일무료취업알선센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안내문을 간호행정팀장 및 수간호사, 경비 등이 순회하면서 떼어냄.

▷ 수간호사가 약봉지에 사설영리업체 안내문을 붙여서 배포하고, 간호사들한테 사설업체를 인계함.

▷ 병원장 면담하러 갔다가, 남자직원, 경비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개꿀듯이 끌려나와 바닥에 내동갱이 쳐짐. (6명 전치 2주 진단)

▷ 간병인 대표 2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병원 현관앞 농성 및 철야농성에 돌입함.

10월 2일 ~ 수간호사가 직업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불러서 어디 소속인지 확인하고 노동조합원이 확인되면 사설업체로 옮기지 않으면 일할수 없다고 협박함

10월 6일 병원, 간병인 3명 및 서울대병원지부간부 7명(지부장 등), 본조 간부 2명(현정희 부위원장, 조직2국장), 노원일일무료취업알선센터 무료소개소장 등 13명을 문화재관리법위반(시계탑건물 현관 문고리 빠진 것), 업무방해, 명의 도용 등으로 고소함.

10월 7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서울대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 위반(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 직업의 선택권 침해 등)으로 제소함.

10월 9일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및 병원장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10월 10일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및 병원장 약속 이행 촉구' 제1차 결의대회

10월 15일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대상 선전전

10월 17일 10:30 '간병인 문제해결 및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 기자회견 및 대표자회의
17:30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및 병원장 약속 이행 촉구' 제2차 결의대회

10월 28일 11:00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약칭: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및 집회

11월 5일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병원내 피켓시위(12:00) 및 결의대회 (13:30, 병원시계탑건물앞)

11월 6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보고

11월 7일 청와대비서실과 면담 (보건의료단체연합)

11월 8일-9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선전전 및 서명운동

1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총파업투쟁시 2차 결의대회 (13:30, 병원시계탑 건물앞)

11월 14일 간병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14:00, 국회헌정기념관)

서울대병원 간병인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18:00 ~, 함춘당)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 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 중 규 정책위원

I. 들어가며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1일 15년 간 무료로 운영해오던 간병인 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파견업체 두 곳을 선정하였다.

현재 서울대병원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일년에 2,4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던 '간병인 무료 소개소(이하 무료 소개소)'를 병원 측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폐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더욱이 평소 병원 측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상 서울대병원 직원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열성을 다하여 간병을 해야한다'고 교육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간병인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 병원 측의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무료 소개소를 폐쇄시키기 위해 병원 관리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병동의 수간호사까지 발벗고 나선 것은 그만큼 무료 소개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무슨 문제 때문에 기존의 무료 소개소를 폐쇄시키면서까지 유료 소개소를 도입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무료 소개소를 유료 소개소로 바꾼 데는 무엇인가 환자들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 환자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단기 입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들이 대부분이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전인간호(total care)가 이루어져야 할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수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 수발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환자 보호자의 몫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를 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전가는 환자로 하여금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 보면 대략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천문학적 비용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다¹⁾.

간병이라는 개념은 간호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처럼 대부분 법정간호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중간단계로 우리는 "환자의 간병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원칙 속에서 간병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현재 서울대학교병원(1,500병상) 기준으로 하루에 200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대 병원을 기준으로 전국 300병상 이상의 병원(약89,724병상)들에서 일당 4만원~6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다. 일당을 5만원으로 하면 연간 약 2,18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일당을 6만원으로 하면 연간 약 2,61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현 상황에 대한 검토

가. 무료 소개소 vs 유료 소개소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성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어느 정도 했는지, 간병과 관련한 교육은 받았는지, 그리고 병원 업무와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등등.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대부분의 병원 근무 간병인들이 유료 소개소에 소속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 업체들에 관리감독 및 교육의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²⁾. 또한 이 문제는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병원 측의 간병인에 대한 책임전가를 동반하게 된다. 이처럼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병원 측은 환자 수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반면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직접 간병인 소개소를 허가받아 설치, 운영해왔다. 병원 내 소속은 행정과이나 간병인 등록 및 알선 등 제반 업무 및 관련 문제는 간병인 소개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였다. 관리자는 병원 소속의 시간제 촉탁 간호사로 병원에서 무료로 간병인을 입원환자에게 알선 소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무료 소개소는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가 적어도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아프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병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은 어떨까?

입원하는 순간부터 환자와 보호자는 낯선 환경 속에서 당황하고 실수하기 십상이다.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등등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환자와 보호자가 대부분 슬기롭게(?)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떤 일이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어떤 일을 보호자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몸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의존은커녕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 수발도 결국 환자 보호자의 몫이다. 하지만 환자 수발이라는 일이 하루종일 환자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이 24시간 환자 수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환자 수발을 위한 간병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병원의 무료 소개소 폐쇄 조치는 그나마 겨우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 대

2) 황나미, 고덕기. 종합병원 간병인 활용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 병원의 책임을 사설 유료 소개소에게 떠넘김으로서 이제 완전히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매년 수 백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사업별 정부출연금 및 정부보조금 명세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당해연도발생금액	연도별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계
2000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25,252,000	34,435,000
		치과임상연구동신축	1,200,000	
	정부보조금	차관원리금 상환	7,983,000	
2001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30,034,000	38,672,000
		소아진료부 확충 및 개보수	2,000,000	
	정부보조금	차관원리금상환	6,638,000	
2002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44,100,000	54,658,000
		소아진료부 확충 및 개보수	2,500,000	
		응급의료센터확충	1,500,000	
	정부보조금	차관원리금상환	6,558,000	
2003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31,600,000	41,651,000
		소아진료부 확충 및 개보수	2,500,000	
		응급의료센터확충	1,500,000	
	정부보조금	차관원리금상환	6,051,000	
합계			169,416,000	169,416,000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병원 관리자들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수 백억 원의 국고지원금 중에서 무료 소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매년 2,400만원에 불과하였다. 반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38, 39층에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라는 이름의 건강검진센터를 세웠다. 보건소에 신고된 공식적 이름이 "서울대병원 강남의원"인 이 검진센터는 말로는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월 임대료만 2억이고 관리비만 8천만원이며 온갖 첨단 의학장비를 오로지 건강검진 목적으로 들여놓은 이 검진센터는 사실상 누가 보아도 일부 부유층을 위한 돈벌이용 검진센터이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공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공공의료강화' 일 것이다. 그런데 국립 서울대병원의 최근 행보는 공공의료강화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III. 선진외국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현황³⁾

가. 미국

- 1998년 현재 가정간호사업에 종사하는 가정간호보조원의 비율은 미국 총인구 (272,691천명) 대비 0.12%에 해당되며, 199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12.3% 임

표 4. 미국 가정간호사업 종사자(1998) 및 메디케어 인증 사업기관 상근환산 종사자 현황 (2000)(Number of Home Health Care Workers, 1998 and Medicare-certified Agency FTEs, 2000)

Type of Employee	Number of Employees ^a	Number of Medicare FTEs ^b
RNs	129,304 (19.3)	89,914 (37.4)
LPNs	40,849 (6.1)	22,397 (9.3)
Home Care Aides	326,633 (48.6)	67,949 (28.3)
total	671,600 (100.0)	240,136 (100.0)

자료 : NAHC. BASIC STATISTICS ABOUT HOME CARE(2001. 11)

a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Industry-Occupational Employment Matrix, data for 1998. Excludes hospital-based and public agencies. (September 2001)

b Unpublished data on FTEs in Medicare-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for calendar year (CY) 2000 from the HCFA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s, Health Standards and Quality Bureau. (February 2001)

주) 괄호 안은 전체 가정간호사업 인력에 대한 해당 직종이 차지하는 구성비임

- 미국은 2000년 현재 개인 및 가정간호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 (Personal and home care aides)은 414,000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 가정간호사업기관 등에서 활동⁴⁾(2000년 인구대비 0.15%, 65세 이상 인구 비율 12.4%)

- 2001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home health aides는 560,190명(전체 인구대비 0.20%,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Personal and Home Care Aides 408,360명(전체 인구대비 0.15%, Personal Care and Service Occupations)⁵⁾이 활동 중임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2003.2

4) <http://www.bls.gov> 2003-02-03

5) 2001 National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Estimates. <http://www.bls.gov/oes/2001> 2003-02-04

나. 일본

1. 개호복지사

가)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법(소화62년 법률제30호)에 의하여 창설된 복지전문직의 국가자격

나) 개호복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일상활동을 지원해 주며, 목욕, 배변, 식사 등의 개호 행위를 제공

다) 자격 취득 방법

(1) 개호복지 양성시설을 졸업하거나,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고교졸업 → 지정된 양성시설에서 2년(야간 3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 취득(2003년 1월 현재 347교, 387과정)

(나) 고교졸업 → 사회복지사 양성시설이나 복지계 대학 등 졸업 후 지정된 양성 시설에서 1년(야간 2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 취득(2003년 현재 3개교 3과정)

(다) 고교졸업 → 보육사 양성시설등을 수료 후 지정된 양성시설에서 1년(야간 2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 취득(2003년 1월 현재 57개교 57과정)

(라) 실무경력 3년에 준함(고교복지과 등) → 개호복지사 시험 합격

(2) 개호복지사는 복지시설, 노인보호시설, 개호력강화병원, 의료기관의 요양형병상군 등에서 활동

(3) 주요 업무 내용은 생활전반에 걸친 지원활동으로 식사, 배변, 목욕 등 수행. 특히 노인시설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4) 각 시설에서는 개호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차후 재택방문개호사업에도 개호복지사와 홈헬퍼가 필수요원임

(5) 개호직은 사고 등 위험 요인이 있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함

(6)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약 167,000명(평년11년, 1999년 총인구 대비 0.13%)

2. 홈헬퍼

가) 홈헬퍼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생활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지원업무, 신체개호, 상담지원업무 등으로 분류

(1) 가사지원업무 : 조리, 생활필수품 구매, 의류 세탁 및 보수, 청소, 정리정돈, 관

계기관 등 연락

(2) 신체개호 : 식사보조, 신체 청결 및 세발, 배설보조, 통원 등 보조, 옷입기 보조, 목욕 등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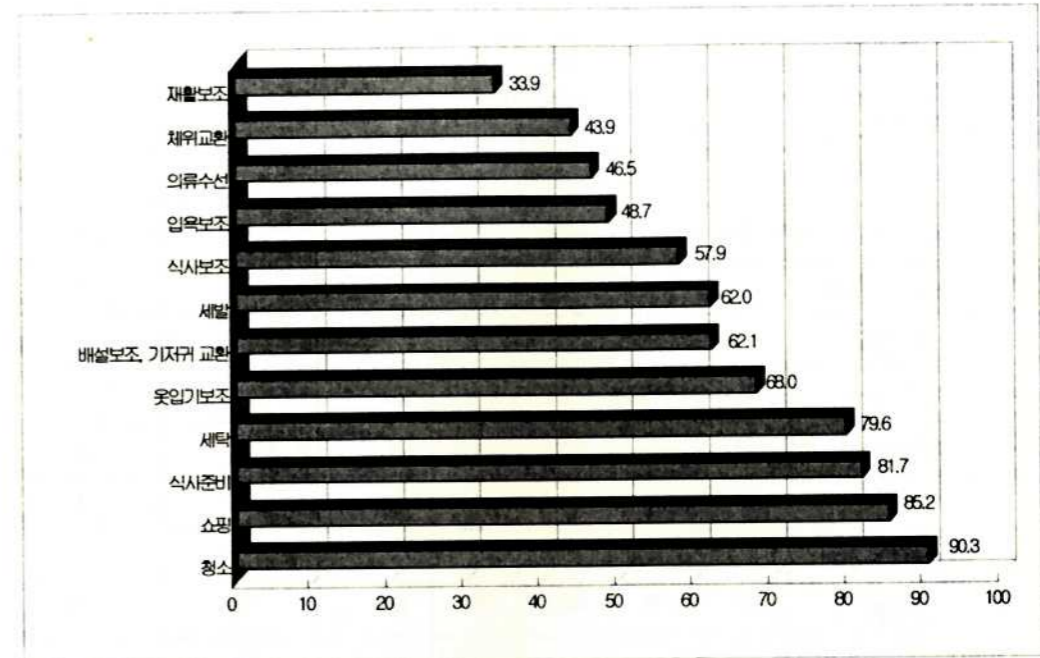


그림 2. 일본 홈헬퍼 활동내용

(자료 :前川美智子, 入門 ホームヘルパーになろう!—仕事の身から資格取得・ステップアップまで, 2001. 재인용)

나) 홈헬퍼는 이용자 가정을 중심으로 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등과 연계, 업무 수행

다) 홈헬퍼 자격 취득자는 양성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자는 단기간 수료 가능

표 5.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양성과정

구분	개요	교육시간(시간)				수강의 조건
		강의	연습	실습	소계	
1급	주임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84	62	84	230 (1년 이내)	2급 수료 후 실무 경험 1년 이상
2급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58	42	30	130 (8개월 이내)	
3급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	25	17	8	50 (4개월 이내)	

표 6.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연수내용

구분	내용	1급 과정	2급 과정	3급 과정
강의	사회복지 기본		6	3
	노인보건복지 제도 및 서비스	10	6	4
	장애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	7		
	사회보장제도	3		
	방문개호		5	3
	개호기술	28	11	3
	노인, 장애자의 질병, 장애 등		14	3
	가사원조 방법		4	4
	상담 원조		4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20		
	의학관련 기초지식	16	8	5
	복지서비스 제공시의 기본적 태도		4	4
	주택개호지원	6		
	연습	개호기술	30	30
수발이 어려운 사례		20		
복지용구 조작법		6		
방문개호계획의 작성 등			5	(사례검토) 3
레크리에이션			3	
개호실습		76	24	
실습	노인보건복지 관련 기관 견학	8	6	8
	소계	230	130	50

자료 : 후생성성령 제23호.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평성 12년 3월 10일

라) 1999년 현재 홈헬퍼 총수는 약 17만명(총인구 대비 0.13%)

마) 2001년 10월 현재 활동 중인 홈헬퍼는 방문개호 73,178명, 방문입욕개호 3,552명으로 각각 전체 종사자의 70.4%, 32.6% 수준임

표 7. 방문개호·방문입욕개호·방문간호스테이션 상근 환산 종사자수(2001년 10월 1일 현재)

(단위:명)

구분	방문개호 ¹⁾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스테이션		
	총수	상근	비상근	총수	상근	비상근	총수	상근	비상근
종사자 총수 (2001년 10월 1일 현재)	104,019 (76,973)	50,911 (40,526)	53,108 (36,447)	10,890 (9,426)	7,875 (7,252)	3,015 (2,174)	21,534 (22,302)	15,442 (15,820)	6,092 (6,482)
개호직원(방문개호원)	98,569	46,435	52,134	6,992	5,239	1,753	.	.	.
개호복지사	17,785	15,423	2,362	1,286	1,183	103	.	.	.
홈헬퍼 1급	8,807	6,660	2,147	395	333	62	.	.	.
홈헬퍼 2급	62,314	21,162	41,152	3,032	1,989	1,043	.	.	.
홈헬퍼 3급	2,057	278	1,779	125	68	57	.	.	.
간호사	837	554	283	1,442	891	551	16,817	12,219	4,597
준간호사	794	489	306	1,752	1,201	552	2,689	1,881	808
이학요법사	760	489	271
작업요법사	344	243	100
그외의 직원	5,451	4,476	975	704	545	159	926	611	316
서비스 제공책임자 ²⁾	17,501

1) 방문개호의 개호직원에는 간호사, 준간호사, 서비스 제공책임자 포함

2) 개호복지사, 1급 과정의 연수를 수료한 사람, 2급 과정의 연수를 수료하고,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자료 : 후생성. 2001년 개호 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의 개황 www.mhlw.go.jp 2003-01-09

IV.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우리나라의 간병인들의 현황과 선진 외국의 간병인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가가 책임성 여부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2007년을 기점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만여 명의 간병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제는 더 이상 간병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간병을 병원이 아닌 환자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이 아니라 병원이 적절한 수의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들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제도 밖에 비공식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간병인들을 의료서비스 영역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간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방안

첫 번째,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병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현재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다만 과도기에서는 제도상의 한계는 있지만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무료 소개소' 폐쇄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공립병원 등에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현재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각 시도의 국립대학병원은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6)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센터를 병원 내에 설치하고,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의 책임을 병원에 두도록 하며,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소 등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설치하여,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단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시설내에 무료 소개소를 설치하며, 간병인들은 정규직화하여야 한다.

나. 정책효과

첫 번째,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현재와 같이 '사설 유료 소개소'에 의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맡긴 상황에서는 간병인들의 적절한 간병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낮은 수준의 간병 서비스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국공립 병원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작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병원 측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간병제도 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모든 책임을 간병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 보호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병원에 있으며, 간병인들이 병원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이는 결국 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V. 맺으며

우리는 '간병인 무료 소개소'가 간병제도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간병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작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강화임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필요에 호응하는 정책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람은 아프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간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간병의 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서울대 병원의 무료 소개소 폐쇄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 정부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 방향과 정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대 병원의 간병인 무료 소개소의 폐쇄 방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별첨]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안)⁷⁾

가. 교육훈련기관 인정기준

1.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시·도에서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안)

가) 강의실·실습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최소 20명 수용)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 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음(동일 요건의 시설 임대사용 가능)

(2) 실습실 :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교육용 기자재 - 강의용 VIDEO, OHP, 실습용 침대 등

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실무전담인력

(1) 1인 이상 확보 (1회 교육인원 40명 이내 기준)

다) 교육훈련 이론 및 실기강사 자격

(1) 이론 및 실기 -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및 관련학과 전공 전문가

(2) 현장실습 - 실습기관의 실무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실습 지도 시행

(3) 현장실습 기관

- 재가간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 등

- 시설간병서비스 : 정부지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4)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교육대상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저소득계층 여성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

2. 교육과정 (안)

가) 강의(이론교육) - 40시간

나) 연습(실기교육) - 20시간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2003.2

다) 현장실습 - 40시간

(1) 재가간병서비스, 정부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라)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필기시험 실시

구분		교육과목
강의 (이론교육)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수발 및 가사지원	신체간병수발, 가사지원
	의학기초	가정간호, 재활훈련, 노인 및 장애인의 질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이해, 의료 및 간호 관련 법규
	소양교육	직업윤리, 의사소통술, 노인 및 장애인의 심리상태
연습 (실기교육)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재가요양계획 수립, 보건복지서비스연계
	수발방법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신체간병수발기술
현장실습	수발계획	사례검토, 재가요양계획수립
	장기요양시설 실습	장기요양시설 실습
	재가요양시설 실습	재가요양시설 실습

나. 적정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 도입

1.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에서 장기요양복지사(가칭) 인증서 교부

가) 출제위원회 - 전문가, 교육자로 구성

(1) 문제은행 구축

(2) 문제은행 관리기관

(3) 필기시험 - 객관식

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도 도입시 기존 경력자에 대한 경력인정 요건 및 신규 등록자의 최소 자격요건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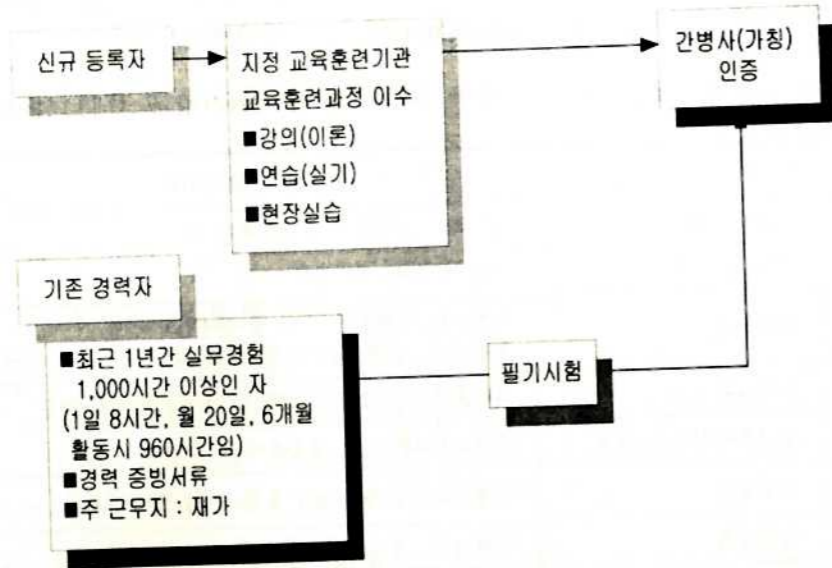
(1) 신규 경력자의 기본 인격적 소양 외에 연령 제한 규정 등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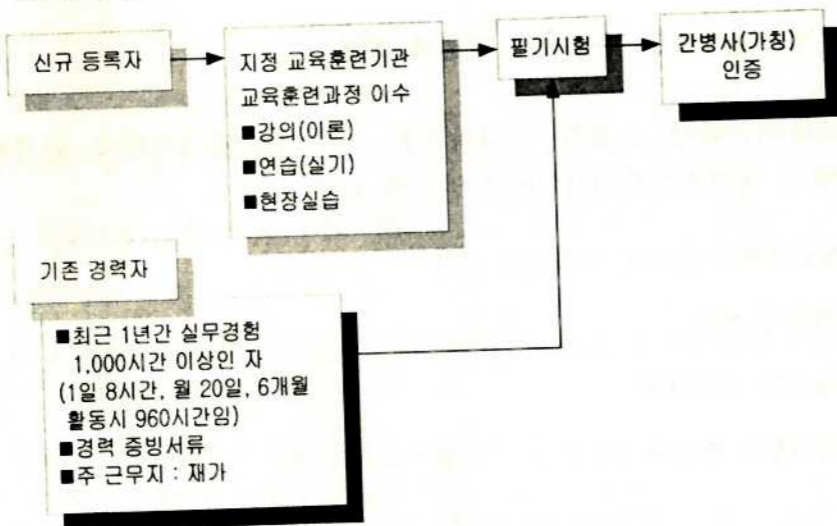
'간병'을 국가가 제도화시키고 책임져야 한다

강 주 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i) 방안 1



ii) 방안 2



전체 투병비용을 둘로 나눈다면 아마 병원비(치료비)와 간병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환자들은 전체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간병료로 지불하고 있다. "보호자나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것도 생업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처리한다면 간병비용은 치료비용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이다."

환자들은 보통 가족 중 1인이 환자의 간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노인들 등 나머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 또다시 그 집으로 와야 하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간병'이란 것이 지금까지 병 걸린 환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있어온 것의 사회적 모습이다.

이 간병은 24시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간병의 내용도 단지 환자가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을 준다든가, 산책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 외에 무의식 환자간호, 환자의 이상유무 체크 및 보고 등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라고 보는 일들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가족이 되든 또는 업체의 간병인이 되든 간에 환자에게 있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중요한 존재이다.

정부나 병원도 간병인들의 역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그 비용은 소비자인 환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면 정부와 병원은 '간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의 간병인들이 환자들이 튜브로 하는 식사를 도와주고, 가래를 뽑거나 오물백을 갈아주고, 무의식 환자를 돌보며, 한밤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것이 간호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간호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간병인의 역할이 다분히 간호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지불하는 입원료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이미 입원료에 입원환자의 간

호관리료가 반영되어 일정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실료를 내고 간병비용을 또 부담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는 간병비를 이중으로 지불한 꼴이다.

이는 중환자실에서 중병의 환자 간호와 간병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따로 환자에게 간병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각 병원의 무균실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예로 들면 서울의 모대학병원은 골수이식을 위해 무균실에 환자가 들어가면 선택의 여지없이 특정 업체의 간병인을 써야 한다. 분명히 무균실 수가에 환자간호료가 반영되어 환자가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10일에 25만원씩 한 달에 75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환자가 업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든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간병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하는 것은 불법 이중청구라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위에 말한 대로 정부는 간호의 범위를 밝히고, 만약 간병인들이 누구였든 병원이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었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간병은 의료보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간병의 역할을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의료법 등 법과 제반의 관련 규정에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 내야 할 돈의 내용과 금액만 있지 환자의 의무 규정에 간호나 간병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 질병의 치료를 위한 모든 행위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왜 간병업무를 사설업체에게 맡기려는 지를 생각한다. 이는 한마디로 서울대병원은 '간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생각은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에서 "간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및 손해에 대해 전문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환자 분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는 병원에서 사설 업체가 간병의 역할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병은 병원의 역할이자 의무이지 보호자나 환자가 그 짐을 떠안아야 할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존재 자체가 불안한 간병인들을 거

리로 내쫓고, 간병의 의무를 피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간병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간병인들을 정규 간병 직원들로 채용하여 스스로 간병의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게 국민과 환자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대 병원 및 각 시도 지방공사병원 그리고 3차 병원 급에는 간병인센타를 자체 운영토록 하고, 간병인들의 모집 교육 관리를 병원이 전담하며, 정부는 최소한 수급자들에게는 부분적이라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 양 희(서울여성노조 상담센터장)

1.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

분명히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파출부, 가정부로 불리는 가사노동자들과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낮은 보수를 받으며 장시간노동, 위험한 노동,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다.

"우리사회에는 지금 신자유주의 광풍앞에서 이미 절반이상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다시금 아예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비공식으로 내몰리고 있다⁸⁾. 비공식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법외노동자이다."

간병인 등은 소위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되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⁹⁾ 하고 성산업노동자는 불법이어서, 카드가입자 모집인, 야쿠르트 배달원, 화장품 외판원 등 무급종사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회보험법에서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8) 비공식노동자의 특징은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를 알기 어렵다. 비공식노동의 일부를 드러낸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비공식노동자가 이미 150만명 가까이 된다. 통계청의 에 따르면 2002년 8월기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749,000명이고 가정내근로자(재택근무, 가내하청) 239,000명,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 일일근로자 423,000명으로 통계에 드러난 비공식노동자의 규모만 해도 전체임금노동자 13,631,000 1,411,000명으로 전체의 10.4%에 달한다. 여기에 법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180만여명의 급가중종사자와 150만여명의 성매매종사자들, 아예 그 존재가 숨겨져 있는 다양한 비공식노동자 감안하면 최소한 5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를 위한 제언

간병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간병인을 국가나 병원이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간병인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조합이 알선 및 공급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 알선중심의 파견업을 금지하고 공공알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후 인력파견업체를 선정하여 간병인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파견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장은 간병인들의 사용사업주인가? 직접 고용한게 아니니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니에스라는 인력파견업체는 누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나? 환자나 보호자를 사용사업주로 하였다면 노동부가 이들 개인을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것도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유니에스라는 업체는 유료직업소개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파견업체는 유료직업소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공익단체란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하므로 구인자 구직자 모두에게 유료직업소개소보다 신뢰가 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이 이를 폐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견허용업무는 사무보조원, 전화교환원, 여행안내원, 조리사, 보조, 간병인, 개인보호 근로자, 텔레카메라, 건물 청소원 등 다수가 여성 집중직종의 업무이다. 여성노동의 대부분이 노동의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킨 파견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법제정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매우 불이익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유일하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근로자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 간병인은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특성이 있고 직무상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간호사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는 등 노동과정에서 병원의 통솔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한하여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유료직업소개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파견업체가 일일취업알선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에 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무료직업소개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지 소개만 하고 지속적인 중간착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2. 간병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의 적용해야 한다

간병인, 가사노동자들은 직접고용관계속에 있다. 행상이나 노점상과 같은 자가 고용노동자도 아니고 외판원과 같은 소위 개인사업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노동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10)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은 통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사업주가 아니고 개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가사노동자들은 왜 법 적용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일까? 노동법 해설서들을 보면 "가사사용인이라 가정부, 과출부, 유모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규제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11).

노동부는 간병인을 가사노동자와 유사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10) 홍콩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법적으로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므로 5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기도 한다.

11) 서울여성노조 정책제언 22(2001.1.10)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다.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240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회시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이라 답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시급히 가사사용인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가사노동자와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로 여성노동자들인 가사노동자, 간병인들은 직업병, 산재 뿐아니라 성희롱, 성폭력의 위협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인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 여성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수치다.

2000년 11월 23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임시, 일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절반밖에 안되는게 현실이지만 그것조차도 적용이 안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간병인, 가사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지나친 저임금에 혹사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 가사노동자 등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전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사고성 재해 뿐 아니라 누적성 질환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12). 간병인들도 이러한 직업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필수적인 휴게시간도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전염성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12) 서울여성노조,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심포지움 자료집, 2001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지정토론 내용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윤연옥

1. 간병 노동시장 현황

1) 정부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무급가정봉사원 1인당 노인 1~5명, 유급가정봉사원은 노인 8명당 1인 기준 지원

- 2002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활동 중인 가정봉사원은 유급 445명, 무급 5,898명 등 총 6,343명이며, 이 중 교육이수자는 3,642명임

- 지역사회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무료),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실비) 노인 대상

2)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일환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자활급여특례자 →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간병인력은 2002년 11월 현재 146개 기관, 182개 사업단, 참여인원 2,700명 수준

- 무료간병수혜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자, 만성·급성 질환자 등임

3) 비영리단체 간병사업

-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봉사관', 'YWCA'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환자간호 기초과정', '노인간호과정'(각 4일 12시간) 등 교육과정 개설

4) 민간 간병인 단체

- 2002년 6월말 현재 허가된 유·무료 직업소개소 수는 총 4,988개소(유료 4,618개소, 무료 370개소)¹³⁾이며, 2003년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유료 간병인은 약 3,000여명으로 추정

- 1998년 5월 현재 허가된 유·무료 간병인 알선단체(직업소개소) 수는 총 1,754개소이며, 기관당 50~1,000명의 등록간병인을 가정할 경우 최소 10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30~60%가 병원이나 가정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2. 유료 간병소개소 현황과 문제점

○ 유료 간병 소개소 현황

(최소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 간병인 단체 노동시장 현황 ; 2002년 6월 조사자료 참조)

- 각 지역의 유료간병 시장가격은 병원간병의 경우 대체로 12시간 30,000원~35,000원, 24시간 45,000원~60,000원 범위였으며 지역간 간병가격의 차이가 있으며 재가간병의 경우엔 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유료간병시장은 국가 차원에서 그 자격과 운영에 대한 관리가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주로 사설단체들이 간병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간병인은 일용직 파견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경쟁체제하에서 시장임금 자체가 저임금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인력 구성 현황 :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복지간병 사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성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유료 간병 소개소의 경우, 소개소당 50~1,000명의 등록간병인을 가정할 경우, 10만여 명으로 추정됨. (200개소 정도)

- 유료 간병 소개소의 역할은 병원 내 환자와 간병인의 연결만 하고, 간병인

13)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joborg.html> 2003-02-03

간병료는 간병인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받는 전 근대적인 형태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서울대병원 간병인무료소개소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음.

○ 유료 간병 소개소의 폐해들

1) 전근대적인 임금 구조와 착취구조

- 유료 간병소개소에서는 대체로 입회비 20여만원, 매월 회비 5만원 등을 매월 받고 있으며, 하물며 간병복도 간병인이 자비로 해야 함.

-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간병업체(인력파견업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지탄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간병은 가사도우미(파출부)와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성격이 다름. 간병은 국가 책임하에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스템 내에 존재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간 임금 착취구조가 환자에게는 추가비용부담을 간병인에게는 저임금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으므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것임.

2) 간병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책의 부재

- 일반 사설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불안정고용상태에 있는 간병인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는 20만여명의 간병 직종자들의 불안정 고용형태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환자 사고 발생시 예방대책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임.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은 병원 관리책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책임은 간병인과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있음.

3)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관리의 부재

- 간병인은 고학력의 젊은 인력을 요하는 전문기술직이 아닌, 환자를 직접 돌보는(care) 자질과 태도, 능숙한 신체수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임. 그러므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중장년·저학력·저기능의 실직 저소득 여성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만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영역임.

- 그러나 사설영리간병단체에서는 간병 입문자에게 일주일 교육 직후 곧바로 간병 일에 투입시켜 결국 간병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간병업무를 익히고 있음. 혹은 이나마의 교육도 없이 1일 1회의 간병 안내 후 간병일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 관리의 현실임.

-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환자가 욕구하는 간병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임.

- 모든 직무자가 그러하듯이 간병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은 간병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직업인의 스스로의 존엄성은 직무만족도인데, 직무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벽한 직무기술 외에 고객의 만족임. 환자의 치료과정에 참여하고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간병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확인하게 됨.

- 양질의 간병인력 공급과 간병인으로서의 직무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은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예로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인은 교육훈련은 후견기관 자체교육과 함께 필요에 따라 외부교육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으며 실기·실습·이론 교육으로 나누어 하고 있다. 기초과정은 사회복지와 간병활동에 필요한 실기·실습을 중심으로 40시간 정도를 이수하고 있으며, 전문과정은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간병활동 경력 6개월 이상 경험한 이들에게 60시간 정도의 전문과정 이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수 후에는 자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중장기적인 간병인 문제 해결방안

1) 병원 운영의 한 부문으로의 운영의 필요성

- 핵가족화, 노령사회로의 진입 등의 가족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간병은 가구 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보건

복지 서비스 분야로 인식해야 함.

- 그러므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사회 취약계층과 노인에 대한 무료간병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부터 간병 부분을 개인의 영리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병제도를 운영해야 함.

- 따라서 사설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병원에서 직접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강한 비영리단체나 사설업체 등에 위탁하더라도, 간병인의 근무조건과 고용의 안정을 고려한 계약과 운영을 해야 함.

- 즉 간병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다인간병제의 도입, 간병인 임금 매월 일괄 지급 등의 운영을 통해 전근대적인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인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노인병동, 다인병동 등은 간병인 1인당 환자 6명의 공동간병이 가능. 이럴 경우 환자의 간병료는 30만원선으로 낮아짐. 행려병동(공익병동)은 의료급여환자가 입원하는 곳으로 시 지원을 받으면서 무료 입원하고 있지만 간병료는 본인 부담임.

- 특히 시립병원의 경우, 공익병동을 만드는데 국립병원의 경우 오히려 영리만 추구하고 있어 공익병동을 만들지 않고 있음.

- 그래야만 현재 사설단체에서 간병인에게 자행하고 있는 임금 착취구조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다소라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병원에서는 이들 간병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여 건강한 간병시장의 형성과 간병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무엇보다도 이러한 운영을 통해 환자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환자 입장에서 간병제도의 필요성

- 환자 입장에서도 공동간병 등의 도입은 간병료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좋고, 간병인의 안정된 고용형태는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가게 됨.

- 일부 환자들은 24시간 격일근무로 인해 간병인이 매일 바뀔 경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간병을 보건복지 시스템 속에 운영한다는 시스템 개선과정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부분이며, 간병인 운영상의 문제는 간병인들과 병원측에서 협의하여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조정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10월28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문
- 서울대 간병인 투쟁 선전물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은 간병인 문제를 환자입장에서 해결하고 국민과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립서울대병원이 벌이는 진료와 병원운영이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목적에서 너무나 멀어져있음을 보며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 오로지 수익만을 목적으로 의학적 근거도 없이 350만원 짜리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검진센터를 건립하고, 수익에 의거하여 교수들의 월급을 책정하는가하면, 6인 병실을 50%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보다도 모자라는 병상운영으로 환자에게서 병실차액을 챙기는 것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병원의 현실이다. 이런 서울대학교병원이 연 2400만원의 예산이면 운영하는 무료간병인 소개소를 사설인력 파견업체에 넘겨 환자편의를 외면하고 간병인들의 안정적인 간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등 놀랄 일도 아니다.

이외에도 사립병원들이 기피하는 SARS 지정병원 지정을 서울대학교병원이 거부하고 산재지정 병원마저도 거부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격미달행태와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행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국민건강에 반하는 행동을 안타깝게 여기고 수차례 이를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반하는 행태는 그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이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고액건강검진이 불필요하다고 국민에게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에게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름으로 권유를 하며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간병인들을 거리로 내쫓는 행위는 정도를 지나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와 그 상징성으로 국가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이 노골적인 돈벌이에 나서고 환자권익을 무시할 때 이는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서울대병원이 더 자신의 제자리에서 멀리 이탈하기 이전에 국가중앙병원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자신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대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서울대병원당국과 관리감독을 맡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실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최소한 지키지 않으면 안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1.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고액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중단하라.

서울대병원은 이번달 15일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38, 39층에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라는 이름의 건강검진센터를 세웠다. 보건소에 신고된 공식적 이름이 "서울대병원 강남의원"인 이 검진센터는 말로는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의 의료패러다임 변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월 임대료만 2억이고 관리비만 8천만원이며 온갖 첨단 의학장비를 오로지 건강검진 목적으로 들여놓은 이 검진센터는 사실상 누가 보아도 일부 부유층을 위한 돈벌이용 검진센터이다.

주력상품인 '50대 헬스케어 건강검진'의 비용이 88만원에서 140만원이다. 한번의 건강진단에 120만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기에 일류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60대 남성의 경우 320만원 이상이고 여성은 350만원 이상이다. 한마디로 극소수부유층을 위한 검진센터이다.

더욱이 적정진료를 통해 타 의료기관의 전범이 되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하는 검사항목을 보면 한마디로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매우 희박한 "비싸지만 실효성은 의문인" 검사항목 투성이이다. 암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양표지자검사를 실시하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20대에 대장경을 실시하며 가족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고 뇌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하고 암을 조기 발견하겠다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 동시에 대장/복부/흉부/골반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다. 이러한 검사가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여러 부위의 CT 촬영은 질병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은 반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에 기여할 수도 있다. 서울대병원측은 이를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인가?

일부 극소수 부유층을 위해 검진센터를 설립하고, 비용-효과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임상의학적 근거마저 희박하거나 없는 검사를 무더기로 실시하는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병원에서조차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을 일년에 수백억원씩 지원받는(참고자료 표 1)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의학적 근거도 희박한 고액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강남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돈으로 서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2. 환자들에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병실을 줄이고 다인용 병실을 확충하라

서울대병원은 현재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별도의 병실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6인실 이상의 병상이 전체 1404병상 중 601병상으로 전체 중 비중이 42.8%에 불과하다. 이는 법정기준인 5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립대 중 최하의 비율이고 일부 사립대병원 보다도 그 비율이 낮다(참고자료 표 2). 더욱이 3,4인실 병실료가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가장 높다.

이러한 사실은 타 병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대 병원이 오히려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가장 높은 병실료와 가장 낮은 다인용병실비율을 통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표 2,3) 서울대 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5인미만병실을 제외한 병실을 다인실 병실로 바꾸어야 하고 최소한 다른 국립대병원 수준의 병실료를 부과하여 환자에 대한 부당한 의료비징수를 중단하여야 한다. 서울대병원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그것이 최소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전제이다.

3. 불필요한 의료비부담을 초래하는 선택진료제와 의사 성과급제도를 철폐하라.

선택진료제도, 즉 특진제도는 그 출발이 1967년 "국립의료기관의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서 겸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진제도는 사립병원에서도 도입되었고 이후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임금격차가 없거나 역전된 이후에도 병원의 소득과 의사들의 수익을 위해 보존되어왔고 2000년에는 의료법으로 합법화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이 조항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또한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특진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이다. 특히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에 따라 의사의 월급을 차등화하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특진제도로 인한 260억원(2002년)의 수익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특진항목 중 검사료와 방사선 진단 및 치료비용, 마취료는 환자가 선택진료외에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받는 '선택'진료로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당부분의 진찰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진료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의료비이다. 환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공공병원에서 이른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여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철폐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을 의사의 월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선택진료에 대한 과잉유발의 동기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진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제도이다. 진료수익에 따른 의사의 성과급제도는 그 자체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제도로서 철폐되어야 하며 특히 적정진료를 제공하여야 할 공공병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4. 무료간병인소개소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간병제도를 도입하라.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1일 15년간 무료로 운영해오던 간병인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

료 간병인 파견업체를 선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미 두 사설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대병원당국이 지금까지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사실상 서울대병원 직원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열성을 다하여 간병을 해야한다'고 교육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의 '특수고용노동자'를 해고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간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째 간병인이 불안정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사설 유료업체에서 파견이 되면 첫째 간병인의 직무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유료파견업체의 알선료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고 직업안정도도 크게 나빠진다. 이는 곧바로 간병의 질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둘째 유료 사설 간병인 파견업자가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사설업체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간병인에게는 물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미 사설간병인 파견업체가 8개 이상 서울대병원에 들어오게 된 이상 병원측의 가격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대병원측이 간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의무와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무료소개소는 최소 1주일간의 교육을 거친 사람들을 간병인으로 채용해왔으며 또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병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설파견업체들이 간병인 문제를 맡게되면 병원측의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사실 간병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는 간호와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법정간호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중간단계로 우리는 환자의 간병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원칙속에서 간병인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즉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이를 보험급여항목으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보건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도 간병이 원래 병원에서 해야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하거나 현재 간병인을 정식직원으로 채택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만 한다. 더욱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공공병원이 연 2400만원의 저렴한 예산이 드는 무료소개소마저 폐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몇 가지 대표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벌이만을 위한 검진센터 설립이나 다인실 병실의 낮은 비율, 의사성과급제, 무료간병인 소개소 폐쇄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실들이다.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상징성을 볼 때 이러한 부정적인 행태는 사회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전체 의료기관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환자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위 4가지 사항을 서울대학교병원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운동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서울대병원이 제자리를 찾아야 우리사회의 공공의료기관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서울대 병원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이 아무도 돈벌이를 위한 사립병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통감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우선 4가지 문제에 대해 서울대병원 당국이 성의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유층을 위한 고액건강검진 중단하고 검진센터를 서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센터로 재개설하라
2.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부담을 전가하는 다인실병실비율을 최소한 '국립대병원 평균수준'으로 확충하고 고액입원병실료를 낮추라
3.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키는 선택진료제와 교수성과급제도를 폐지하라
4.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를 철회하라. 안정적 간병인 확보 및 훈련을 위해 간병인을 정규직화하고 간병인에 대한 병원책임을 강화하라

03.10. 28

표 1 연도별, 사업별 정부출연금 및 정부보조금 명세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당해연도발생금액	연도별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계
2000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25,252,000	34,435,000
		치과임상연구동신축	1,200,000	
	정부보조금	차관관리금 상환	7,983,000	
2001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30,034,000	38,672,000
		소아진료부 확충 및 개보수	2,000,000	
	정부보조금	차관관리금상환	6,638,000	
2002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44,100,000	54,658,000
		소아진료부 확충 및 개보수	2,500,000	
		응급의료센터확충	1,500,000	
	정부보조금	차관관리금상환	6,558,000	
2003년도	정부출연금	분당병원 건축공사	31,600,000	41,651,000
		소아진료부 확충 및 개보수	2,500,000	
		응급의료센터확충	1,500,000	
	정부보조금	차관관리금상환	6,051,000	
합계			169,416,000	169,416,000

표 2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 6인이상 병실수 및 비율

병원	일반병상수	다인실병상수	다인실비율(%)
서울대병원	1404	601	42.8
강원대병원	234	130	55.6
충북대병원	473	339	71.7
충남대병원	1013	474	46.8
전북대병원	989	660	66.7
전남대병원	858	476	55.5
경상대병원	778	580	74.6
제주대병원	236	167	70.7
강남성모병원	827	698	84.4
고대안암병원	686	558	81.3
서울아산병원	2200*	636	
한양대의료원	973*	400	

표 3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 병실료 (2003년 6월 현재)

병원	특실	1인실	2인실	3-4인실	6인이상
서울대병원	304,580 -844,580	228,916	111,916	68,916	8,916
강원대병원	100,000 -140,000				
충북대병원	195,000+	70,000+	40,000+		7,802
충남대병원	157,800	87,800	57,800		7,800
전남대병원	307,000 -110,000	127,802	52,802 -67,802	37,802 -42,802	7,802
경북대병원	180,000 -350,000	100,000	40,000 -80,000		6,600
제주대병원	50,000+	20,000 -30,000+	10,000		5,000-8,000 0
강남성모병원	490,000	250,000	105,000	35,000	7,300
고대안암병원	400,000 -550,000	129,000 -209,000	79,000 -109,000	40,000	8,360
서울아산병원		240,000	110,000		10,000
한양대의료원	256,688 -706,688	179,968	94,468	44,468 -52,468	6,688

< 간병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간호사님들께 알립니다. >

- 현재 각 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에 대한 탄압은 '협박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노동조합에 접수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일부 수간호사가 "이 가운을 입고는 절대 일 못한다" "병원에서 선정한 유니에스나 아비스 중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겠다" "보호자를 설득해서라도 내보내겠다"라든가,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을 같이 불러서 "유니에스나 아비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에서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들한테서 계속 간병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직원들도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훨씬 간병을 잘할뿐만아니라 병원시스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간병인에 대한 탄압행위는 '협박'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 서울대병원간병인은 현재 노원일일무료취업알선센터 <서울대병원 간병인무료소개소>에서 계승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개소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자문한 결과, 위와 같은 행위는 우리 소개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별 간병인을 협박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시에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간병인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를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지합니다. 병원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는 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무실이나 전화 등 협조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선정된 업체이외에는 간병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없기 바랍니다.

간병인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환자와의 일대 일 관계에서 계약이 맺어지며, 환자나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느 병원이나 간병인은 자유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을 강제할 법적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지속될 때에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2003년 10월 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1] 병원 터무니없는 주장 1] 시설간병인 유료소개소로 넘기면 환자서비스가 향상된다 ???

사실 간병인협회는 영리추구가 일차 목표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관리보다는 회원수를 늘려서 회비로 수입을 늘리는데 치중하는게 사실협회의 기본 생리입니다. 또 간병료 등도 일방적으로 협회에 맡겨지면서 환자 부담이 증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은 모집과정에서부터 공채를 거쳐 수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들을 돌보면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환자보호자들이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사무실 운영 등 비용부담을 좀 덜어보려다가 오히려 환자서비스의 질 저하와 끊임없는 민원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사설협회로 떠 넘길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장의 책임하에 환자의 치료를 중심에 놓고 간병인 교육이나 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 사설협회로 내맡겨진다면 사설협회의 폐해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비교	사실 간병인 유료소개소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간병인 자격	- 자격요건 : 없음	- 병원에서 공채 - 40 : 1~100 : 1의 경쟁 - 자격요건 : 최종학력증명서, 보증인, 재산증명서등
교육	- 소개소에서 간단히 설명한 후 교육없이 당일 병원에 배치하기도 함.	- 반드시 일주일간 적십자사 교육과정 마쳐야 등록가능 - 서울대병원 간호부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입회비	- 처음에 입회비 및 가운비 등 25만원 정도를 소개소에 내야 함. - 월 회비 : 약 5만원정도. - 3개월분 회비를 사전 납입하는 경우도 있음. - 회비로 운영되므로 회원수를 늘리는데 주력	- 입회비, 월회비 : 없음
간병료	- 소개소가 마음대로 결정. (현재 24시간 5만~5만5천원, 12시간 3만5천원)	- 병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 (현재 24시간 5만원, 12시간 3만원)
기타	- 회비 이외에 웃돈을 더 주어야 장기환자 등 원하는 곳을 소개해주는 비리 발생 소지	

2] 병원 터무니없는 주장 2] 간병인들에게는 오히려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 ???

서울대병원 간병인 직업소개소의 폐쇄는 서울대병원간병인의 생존권 박탈입니다. 수년동안 서울대병원 환자의 간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는데 갑자기 폐쇄했으니 나가라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사설협회 마음대로 내보내지는 것을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입니다.

● 환자 보호자분들의 한마디●

" 좋은 제도인데 왜 없애려 하지요? " 당연히 병원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마땅하지요."
" 갑자기 간병인들 내쫓는다는 얘기군요"
" 무료소개소가 좋지요. 사설소개소로 되면 비리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간병인 조합원 일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는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간병업무를 계속 운영합니다'

환자보호자 여러분 !

투병 생활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저희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울대병원에서 길게는 25년, 짧게는 10년이상씩 환자 간병을 담당해 온 간병인들입니다. 그동안 환자보호자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간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9월 1일자로 병원에서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병원은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10월 1일자로 사설 영리 간병인 유료소개소(아비스, 유니에스)를 선정하여 끌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설 간병인 유료 소개소는 간병료의 이중 착취와 웃돈 등 비리의 온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간병인 교육이나 자격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향은 환자보호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점은 이미 병원장님을 비롯하여 병원관리자들도 모두 인정했던 사실이며, 9월 17일 박용현 병원장님도 '사설 유료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제도조차도 환자보호자에게 영리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내에 유일한 무료소개소를 유지해서, 노원 일일무료취업알선센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병인들은 앞으로 보다 나은 환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원일일무료취업알선센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 9시~18시: 원내전화 (760- 3440, 3441)
○ 18시 이후: 담당자(경급자: 019-657-8011, 임종예: 011-9965-9953)

- ♥ 유료간병인 소개소의 폐해를 아십니까? 서울대병원내에 유일한 무료소개소입니다.
- ♥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휴일에도 훈련된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 ♥ 10년이상씩 서울대병원 중환자를 간병한 경험이 풍부하여 중환자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 ♥ 웃돈 요구나 비리를 배제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노사실패 저버리고 간병인 생존권 박탈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간병인소개소 폐지를 철회하라!!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는 다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1일자로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무의식 환자 간병, 튜브로 식사, 흡입기로 가래뽑기, 소변량 체크, 투약 등 실제로 환자 간호와 연관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인이 환자 치료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1988년부터 간병인의 교육 및 관리운영을 병원에서 책임지고 무료소개소(소장: 박용현 병원장)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라니요?

간병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직원과 특히 환자보호자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것도 9월 1일자로 폐쇄 신고해 놓고 9월 4일자로 개인한테 우편 발송하는 처사는 공공병원의 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노동조합과 협의 도중에 비밀리에 악의적인 폐쇄를 한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를 즉각 다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보호자없는 병원'...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나 병원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보호자들이 많이 떠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가족에 여성 취업의 증가 등으로 간병을 할 가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간병인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매년 끊임없이 병원인력 충원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 등을 핑계로 적정인력 충원은 아직 요원합니다. 더구나 환자보호자한테 사적 의료비의 이중 부담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 등을 낳고 있는 간병인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은 병원인력 충원과 의료제도개선입니다. 그동안 차선책으로 현재 존재하는 간병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설영리협회가 아닌 병원이 책임지고 무료소개소를 운영하여 환자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도 이미 인정한 것이며, 1988년도 서울대병원 간병인무료소개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 폐지 철회를 위한 투쟁

1. 철야 농성

- ▷ 일시: 9월 16일 ~ (오후 3시 30분 출정식)
- ▷ 장소: 본관 2층 로비

2. 서명

환자 의료서비스를 위해 만든 서울대병원 간병인 소개소를 하루 아침에 폐쇄시키면서 또다시 환자서비스라는 같은 명목으로 사설 간병인 소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처음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합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서울대병원...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찾기 를 시작합니다!

■ 다인용 병실을 확충해서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라

서울대병원은 다인용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돈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2인실이나 1인실에 입원하여 호텔료보다 더 비싼 병실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해서 한달을 기다려야 겨우 6인실에 갈 수 있는 현실에, 비싼 병실료 걱정으로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병원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어기면서 영리추구로 다인용 병실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별도의 병실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6인실 이상의 병상이 전체 1404병상 중 601병상으로 전체 중 비중이 42.8%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정기준인 5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립대 중 최하의 비율이고 일부 사립대병원 보다도 그 비율이 낮습니다. 더욱이 3.4인실 병실료가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타 병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대 병원이 오히려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가장 높은 병실료와 가장 낮은 다인용병실비율을 통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전 소아과 환자가 입원도중에 병원감염이 되어 병원에서 격리차 2인실로 보냈는데도, 보호자한테 부당하게 병실료 납부를 강요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인 소아환자의 아빠는 병실료 걱정에 밤잠을 한 숨도 못잘 정도였다 합니다. 전염성으로 격리한 경우 당연히 다인실 병실료로 보험 적용이 되는데도 서울대병원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강요한 사례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5인 미만병실을 제외하고 다인실 병실로 바뀌어야 하며 최소한 다른 국립대병원 수준의 병실료를 부과하여 환자에 대한 부당한 의료비징수를 중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간병제도를 도입하라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1일 15년간 무료로 운영해오던 간병인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파견업체를 선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미 두 사설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대병원이 지금까지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사실상 서울대병원 직원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열성을 다하여 간병을 해야한다'고 교육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의 '특수고용노동자'를 해고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간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 간병인이 불안정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사설 유료업체에서 파견이 되면 간병인의 직무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유료파견업체의 알선료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고 직업안정도도 크게 나빠지고 곧바로 간병의 질 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유료 사설 간병인 파견업자가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사설업체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간병인에게서는 물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대병원측이 간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의무와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무료소개소는 최소 1주일간의 교육을 거친 사람들을 간병인으로 채용해왔으며 또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병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설파견업체들이 간병인 문제를 맡게 되면 병원측의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간병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환자개인의 의료비 부담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이를 보험급여항목으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보건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도 간병이 원래 병원에서 해야 할 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하거나 현재 간병인을 정식직원으로 채택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공공병원이 연 2400만원의 저렴한 예산이 드는 무료소개소마저 폐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인권탄압 노조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은 약속파기에 폭행 사주, 나아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수 수간호사까지 동원하여 간병인을 내쫓고 해고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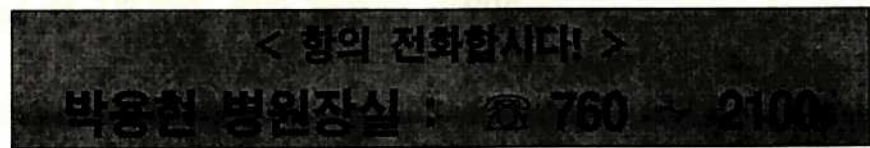
■ 시민사회단체가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돈벌이만을 위한 강남 건강검진센터 설립이나 본원의 다인실 병실의 낮은 비율, 교수성과급제, 무료간병인 소개소 폐쇄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세상네트워크, 여성단체,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월 28일 '간병인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정 서울대병원이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 환자·보호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운동은 환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운동입니다.
돈벌이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노동 보건의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003.10.28**

환자·보호자도 알 권리가 있다 ①

■ 병원은 왜, 간병인 소개소를 사설 유료업체로 넘겼는가?

10월 1일자 병원장 명의의 유인물을 보면, 마치 환자서비스를 위해 사설 유료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환자보호자께서는 눈치채셨을 겁니다. 병원측의 의도는 '병원은 간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병인제도는 간호사 등 병원인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것으로, 가래뽑기, 튜브로 식사, 무의식환자 간호 등 간호와 직접 연관된 많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은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간병인 운영을 병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업체로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 하루만에 업체 선정, 앞장서서 사설 유료간병인업체를 적극 홍보하는 일부 수간호사들...

9월 30일까지 병원은 간병인 무료소개소 선정을 계속적으로 천명했고 이런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사설유료소개소의 문제점을 병원장을 비롯하여 관리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병원장 면담을 취소하더니 10월 1일자로 사설유료소개소인 아비스와 유니에스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간호행정팀장이 긴급하게 수간호사회의를 열어 지침을 전달, 오후에는 병동 게시판에 두 업체의 전화번호와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부 수간호사들이 영리추구의 사설유료간병인 소개소의 홍보대사로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을 입고는 절대 일 못한다" "병원에서 선정한 유니에스나 아비스 중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겠다" "보호자를 설득해서라도 내보내겠다" ... 접수 고발된 불법행위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을 같이 불러서 협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자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들한테서 계속 간병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도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간병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병원시스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고발을 받습니다 >

*** 법률원 자문에 의하면, 현재 각 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부 수간호사의 간병인에 대한 탄압행위는 '협박' 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간병인은 병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며, 환자와의 일대 일 계약관계입니다. 간병인의 결정은 전적으로 환자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합법적인 무료소개소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검증된 업체' 알고보니 '인력파견용역업체'

병원측은 검증된 업체(?)라고 밝히고 있지만, 유니에스는 간병인 관리 전문업체라기 보다는 인력파견용역업체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간호보조업무, 사무보조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저기 파견을 다니고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대병원, 공공병원인가 인권탄압장인가?

- 의료인의 윤리마저 저버린 서울대병원을 규탄한다!
- 교수와 수간호사는 '환자 치료'를 협박 무기로 간병인을 내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최근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쇄이후 병동에서 자행하는 각종 인권 탄압이 도를 넘어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을 탄압하고 병동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들은 "어느 소속이나? 노동조합원이나?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부터 내쫓겠다"며 간병인을 협박하고 교수까지 나서서 "이 간병인을 쓰면 치료에 지장을 주겠다"며 환자보호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울면서 병실에서 내쫓겨 나고 있습니다. 교수로부터 "간병인을 내쫓지 않으면 퇴원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한 환자는 충격으로 고열에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대병원 병동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 조합원 탄압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의료인은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인 환자 치료를 협박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원인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을 내쫓고 영리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환자를 협박하는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와 수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인의 양심을 버린 행위입니다.

■ 근본적으로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소개 업무를 전적으로 유료시설업체에 맡기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일 뿐 아니라 간병인은 물론 환자·보호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호제도로 인해 입원환자의 병 수발은 전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으로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진행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환자의 보호를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간병인 제도는 명백히 의료서비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또한 직업알선 및 소개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경과 및 과정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장은 갑자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소장: 박용현 병원장)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며칠 후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여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무료소개소 폐쇄이후 영리 유료업체의 폐해와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며 환자보호자 서명운동, 철야농성, 피켓시위 등을 하여 환자·보호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9월 17일 병원장과 병원관리자들은 영리 유료소개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 영리유료소개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간병인 조합원의 자체 운영 인정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병원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음 날 아비스와 유니에스라는 영리 유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기 위해 10월 1일 병원장 면담을 하러 간 간병인대표와 서울대병원 지부 노조간부들을 개 끌듯 끌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을 가해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10월 7일 병원 홍보물에 대한 반박의 글 ◀

결자해지 結者解之

10월 7일 병원장 이름으로 직원과 환자보호자에게 뿌려진 유인물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마치 간병인과 노동조합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도 원인 제공도 모두 병원장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말이 바뀌고 거짓말과 폭행,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왔는지는 병원장과 병원관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자 누구인가?

불법을 일삼는 자는 병원장과 병원관리자들입니다. 병원관리자들은 "불법이라도 병원방침이면 한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간병인과 노동조합의 투쟁을 불법·폭력으로 매도하지만 사실 병원이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과 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60세 전후의 간병인 노동조합 여성간부 9명이 20여명이 넘는 남자 경비와 병원관리자를 꼼짝 못하도록 잡아놓고 폭거를 자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면담조차 거부한 병원장을 만나기 위해 시계탑으로 갔을 때 물리력과 폭력으로 대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가공할만한 폭행으로 개 끌리듯이 끌려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김정순 간병인조합원 실신, 라옥란 조직부장 허리 부상, 이용환 조직부장 팔 부상 등 6명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은 서울대병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10월 4일 이향춘 부지부장 결혼식에 간 동료들은 신부드레스속에 드러난 시커먼 명자국들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둘. 병원은 전문적이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선정했다지만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사실 간병인 업체보다 교육과 기술에 있어 더 전문적이고 간병의 질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병원장과 관리자 모두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유니에스란 곳은 1990년부터 인재파견 및 업무아웃소싱 분야에서 국내최대규모를 고수하는 기업의 비용절감/경영효율을 위한 인력파견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도 분당병원의 50%가 넘는 모든 운영기능적인력파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니에스가 간병인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거짓말입니다.

셋. 병원은 오히려 YWCA도 철저히 속여 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이 모두 YWCA로 가기로 했다" "노동조합과 얘기가 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에는 "일방적인 업체 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는 YWCA에는 9월 17일 이전에 이미 공식 공문으로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고 협약서까지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모 과장이 전화해서 "서울대병원 간병인에게는 1년동안 회비를 받지 마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간병인 투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YWCA를 이용하겠다는 병원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YWCA는 긴급회의를 노동조합과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협약 체결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 협약파기를 한 것은 병원측입니다.

이에 대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힘없는 간병인들이 시작한 1층 현관앞 단식농성을 업무방해 및 명분없는 불법농성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장은 YWCA에서 계약 거절을 보낸 것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든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약속도 기분이 나쁘다고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의 병원장이 공인으로써 한 약속을 기분나쁘다고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시작한 농성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시설유료간병인소개소의 문제점들을 인정하여 9월 17일 업체선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간병인무료소개소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셨고, 간병인들의 운영 지침과 교육, 그리고 등록서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드리니 그 순간 면담을 거부하셨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파기하시고는 시설간병인 소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섯, 오히려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병원입니다.

'협박'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등... 간병인조합원들의 단식농성은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 방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병원 방침에 따라 수간호사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개별로 불러서 "사실업체로 가지 않으면 당장에 일을 못하게 내쫓겠다" "내일 당장에 이 가운을 벗지 않으면 일 못한다"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보호자한테 "이 간병인을 쓰면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며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내쫓았아 간병인이 울면서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전화가 한번도 없던 병원관리자가 10월 5일 하루만도 간호사실에 10번이나 전화를 해서 간병인을 감시 탄압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간병인의 인권을 짓밟고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에 심지어 폭행까지 사주하는 일이 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병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파기, 생존권박탈, 공익성훼손, 폭력행사, 거짓말과 협박 등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라며 노동조합이 자체로 운영하는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2003. 10. 8

서울대병원, 공공병원인가 인권탄압장인가?

- 의료인의 윤리마저 저버린 서울대병원을 규탄한다!
- 교수와 수간호사는 '환자 치료'를 협박 무기로 간병인을 내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최근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쇄이후 병동에서 자행하는 각종 인권 탄압이 도를 넘어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을 탄압하고 병동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들은 "어느 소속이냐? 노동조합원이나?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부터 내쫓겠다"며 간병인을 협박하고 교수까지 나서서 "이 간병인을 쓰면 치료에 지장을 주겠다"며 환자보호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울면서 병실에서 내쫓겨 나고 있습니다. 교수로부터 "간병인을 내쫓지 않으면 퇴원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한 환자는 충격으로 고열에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대병원 병동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 조합원 탄압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의료인은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인 환자 치료를 협박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원인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을 내쫓고 영리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환자를 협박하는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와 수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인의 양심을 버린 행위입니다.

■ 근본적으로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소개 업무를 전적으로 유료시설업체에 맡기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일 뿐 아니라 간병인은 물론 환자·보호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호제도로 인해 입원환자의 병 수발은 전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으로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진행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환자의 보호를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간병인 제도는 명백히 의료서비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또한 직업알선 및 소개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 경과 및 과정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장은 갑자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소장 : 박용현 병원장)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며칠 후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여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무료소개소 폐지이후 영리 유료업체의 폐해와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며 환자보호자 서명운동, 철야농성, 피켓시위 등을 하여 환자·보호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9월 17일 병원장과 병원관리자들은 영리 유료소개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 영리유료소개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간병인 조합원의 자체 운영 인정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병원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음 날 아비스와 유니에스라는 영리 유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기 위해 10월 1일 병원장 면담을 하러 간 간병인대표와 서울대병원 지부 노조간부들을 개 끌듯 끌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을 가해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임을 망각하고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간병업무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영리업체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나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로 간병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막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대병원 간병인투쟁은 단지 간병인노동자의 권리보장투쟁을 넘어 서울대병원의 비민주성, 반인권과의 투쟁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간병인 투쟁은 사회적 문제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0월 7일 서울대병원장을 '인격권 침해'와 '신체의 자유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권 침해' 등 헌법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비정규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속속 성명서와 병원장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장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아가 국민의 이중 의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간병인업무의 책임을 정부와 의료기관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인권 탄압외에도 '공공성'에 역행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서울대병원이 강남지역에 초호화판 건강 검진 센터를 개원,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 다인실 병실 기준위반, 치과병원 분립운영, 교수성과급제 실시 등 서울대병원을 철저히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략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순히 서울대병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보호자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병인의 인권회복 투쟁을 계기로 서울대병원의 비민주적 행태, 영리추구의 모든 문제와 맞서 싸워나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차원을 넘어 서울대병원이 진정 공공병원으로 거듭 나기를 원하는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투쟁에 환자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2003. 10. 15

전국보건의료노조 간병인 조합원

※ 유료, 무료소개소 비교표

비 교	사설 간병인 유료소개소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간병인 자격	- 자격요건 : 없음	- 병원에서 공채 - 40 : 1~100 : 1의 경쟁 - 자격요건 : 최종학력증명서, 보증인, 재산증명서등
교육	- 소개소에서 간단히 설명한 후 교육없이 당일 병원에 배치하기도 함.	- 반드시 일주일간 적십자사 교육과정 마쳐야 등록가능 - 서울대병원 간호부에서 정기적인 교육실시
입회비	- 처음에 입회비 및 가운비 등 25만원 정도를 소개소에 내야 함. - 월 회비 : 약 5만원정도. - 3개월분 회비를 사전 납입하는 경우도있음. - 회비로 운영되므로 회원수를 늘리는데 주력	- 입회비, 월회비 : 없음
간병료	- 소개소가 마음대로 결정. (현재 24시간 5만~5만5천원, 12시간 3만5천원)	- 병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 (현재 24시간 5만원, 12시간 3만원)
기타	- 회비외에 웃돈을 더 주어야 장기환자 등 원하는 곳을 소개해주는 비리 발생 소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설 간병인 유료소개소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병원은 그동안 서울대병원 간병인무료소개소 폐지의 이유로 내세웠던 각종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했다. 아니, 실상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9월 16일 노사협의회의에서는 이런 병원의 간병인소개소 폐지가 근거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자서비스의 향상"은 근거없는 말이었다.

병원이 말하는 환자서비스향상이 된다는 근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했다. 전문직 간호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근거없이 사설간병인들의 간병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는 병원의 근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전문성있는 업체라는 사설 간병인소개소 선정의 기준조차 모호하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재도 병원에 들어와 있는 사설 간병인 유료소개소중의 하나는 간병인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지도 않는 인력수급업체이기 때문이다. 노사협의 회의에서 관리자조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경영상만의 이유도 아니다.

병원장은 간병인무료소개소폐지 이유를 "경영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경영적 판단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교섭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도 제시 못한 채 '수치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 답변할 수 없다." 로 일관하였다.

실상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단 해치워보자는 물지각한 병원의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심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파는,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료비 상승과 병원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분노, 최소한의 역할 기대에 대한 바람마저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나마 보따리 싸들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공공하는 노동자들의 불안노동으로 박탈감은 더해갈 것이며 그 속에서 질 좋은 서비스는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일해왔던 간병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하며 병원장이 도덕성마저 저버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면, 타당성없는 분명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대병원 전체를 살리는 일일 것이다.

간병인 소개소폐지 철회 투쟁 일정

- ▶ 오전 7시 30분 : 시계탑앞 노상 농성 / 이침 선전전
- ▶ 오전 10시 : 병원장 면담

우리 서울대병원 간병인들도 어떤 경우에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병원까지 따라가서 일하곤 합니다. 다음은 제가 겪었던 사설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K의료원의 경우는 H간병협회인데 이 협회는 관리직 차원이라며 매일 순회를 합니다. 말이 관리직이지 실제 순회시 뇌물을 받으면 괴롭히지 않고 뇌물을 안 받으면 간병인을 괴롭히고 환자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모든 업체가 간병인료를 똑같이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간병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다시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S병원에서는 수간호사가 자신들이 로비를 받은 업체의 간병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관제가 없던 간병인들이 일하면 비난하고 괴롭히며 일하기 힘들게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를 얼마나 성심껏 간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Y병원은 간병인들끼리 서로가 눈치보며 하는 말이 관리인이 심지어 손자 돌잔치까지 간병인들에게 알리며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설협회가 전문업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간병인 전문학교나 교육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 말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간병인 전문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간병인 사무실 하나를 운영을 못해서 사설로 넘긴다는 것은 환자 간호에 대한 병원의 책임감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병원에서 교육, 관리 감독해온 서울대병원간병인 소개소가 사설로 넘어간다면 뇌물이 오가야 일할 수 있고 암암리에 간병인들끼리 환자를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주고받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만연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서울대병원 일체를 사랑해온 우리들입니다. 비록 사설협회보다 임금도 적고 일은 힘들지만 여전히 서울대병원 환자를 돌보며 담당하고 멍뭍한 모습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 000

현장스케치



서울대병원 간병인 소개소 폐지 철회를 위한 투쟁은 16일 이른 아침 7시경으로 선전전을 시작으로 1층 현관에서 서명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한 얼굴로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인 조합원의 열성적인 설명에 병원의 무책임한 소개소 폐지에 대해 알고 분노했다. 그리고 서명용지는 순식간에 300명이 넘어가고 한 보호자는 병원장에게 항의해야겠다며 전화번호를 물어 적어가는 분도 있었다. 특히 간병인 소개소 유지에 대한 찬반 스티커 붙이기는 환자 보호자들의 열띤 호응속에서 압도적인 찬성지지를 보였다.(하나있던 반대표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환자보호자들의 반응은 병원의 정책이 환자와 함께 가지 않고 있으며 동떨어진 결정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간병인 조합원들은 이런 병원의 결정사항에 대해 "사람 봐가면서 무시하는 것이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서울대병원장이 어떠한 사전 논의와 통고도 없이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너무도 부도덕한 것이다. 힘이 없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며 울분을 토해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간병인 조합원 일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제4-17호 2003. 9. 9(화)	신 새벽	구조조정 저지!! 공공의료 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http://snuh.nodong.org snuh@snuh.nodong.org

노사실패 저버리고 간병인 생존권 박탈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간병인사무소 폐지를 철회하라!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해 온 간병인소개소를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번 간병인소개소 폐지는 서울대병원간병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자 환자의 의료서비스 문제이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은 환자간호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간병인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간병인의 교육 및 관리를 병원이 책임지고 하기 위해 88년도부터 간병인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 폐쇄 며칠 후 개별통보... 생존권 박탈과 인권탄압

그러다 서울대병원은 느닷없이 9월 1일자로 간병인소개소를 폐쇄했다는 공문을 9월 4일자 소인으로 발송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당사자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없이 그것도 폐쇄한 지 며칠 후에야 개개인한테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장이 이렇게 상식적인 과정이나 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이미 2003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거나 간병인복을 다시 맞춘 경우도 있다. 사회적인 약자, 환자 치료를 위해서 밤낮으로 힘들게 일해 온 간병인들을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 버리듯이 하는 병원장의 부도덕성을 규탄한다.

■ 의료제도개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 환자간호와 직결된 간병인의 관리운영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간병인제도는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의 모순속에서 생겨났다. 턱없이 부족한 병원인력으로 환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핵가족 및 여성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관계도 급변하여 병원간호를 담당할 가족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간병인을 둘 수밖에 없다. 24시간 환자를 돌보고, 심지어 흡인(가래뽑기)나 튜브로 투약, 소변양 체크 등 환자간호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병원인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임금이나 처우도 형편없다. 이러한 병원 인력에 대한 정책제도의 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현존할 수 밖에 없는 간병인제도에 대한 차선의 방책은 병원에서 책임지고 운영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통해 환자 치료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노사협의 중이던 서울대병원 간병인소개소 폐쇄 - 노사실패 저버리는 병원

또한 간병인의 처우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과 해 오던 중에 일방적이며 갑작스럽게 서울대병원 간병인소개소를 폐지해 버리는 행태는 노동조합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도발이다.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한 간병인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병원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간병료문제 등 일부가 개선되었고 나머지 사안들을 오는 9월 16일 노사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게 되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노조와 어떤 논의도 없이 간병인소개소를 폐쇄하는 병원장을 규탄한다.

이번 문제는 아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 특수 고용노동자에 속해있는 간병인들의 생존권보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원을 포함한 병원사업장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투쟁이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등 고용형태로 야기되는 갈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분열을 막고 승리하기위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병원은 간병인 소개소 폐지를 철회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통해 환자 치료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병원이 추구하는 인간중심, 환자중심 병원이 되기위한 한보 전진일 것이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및 병원장 약속 이행추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서울대병원 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많게는 25년 적게는 10년 이상씩 간병을 하면서 긍지를 느끼며 원장님을 존경하고 병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의 유일한 생계조건인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를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4월이나 지난 후에 개별 통보하는 이런 부당한 일을 상대가 단지 사회적 약자인 간병인이란 이유로 병원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병원장님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잃게 되는 이 억울함과 설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간병인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한 병원과 원장님의 도덕성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또한 우리 간병인은 사람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없지요.

그리고 9월 17일 병원장님은 면담에서 우리 간병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간병인 선정 중단과 저희 서울대병원 간병인의 무료소개소 자체운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30일 예정되었던 병원장님과의 면담은 지난 주부터 약속했으며 무료 간병인소개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대로 서류준비하고 면담시간이 되니 원장님은 이유없이 면담을 회피하고 거부했으며 다시 면담할 약속조차 거부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장님은 17일 본인이 우리 간병인과 노동조합 대표들한테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병원장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최고위급 의료인의 도덕성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서는 짐작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도덕성으로 어찌 환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아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리를 위해 사실로 넘겨야 되었는데 그것이 안되니 힘없는 간병인을 놓고 우롱하는 것입니까?

병원장님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넘기려 하면서 서울대병원 간병인이 천직이라 생각하며 환자를 위해 일해온 우리들과의 약속은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지만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일하고 우리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간병인 대표 2명은 이미 죽어나갈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단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웃는 얼굴로 간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치기 폐쇄! 일방적 약속 파기, 병원장을 규탄한다!

병원장은 간병인 사무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간병인 제도는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현실의 모순속에서 생겨났다. 턱없이 부족한 병원인력으로 환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핵가족 및 여성취업 증가 등 가족관계의 급변으로 병원간호를 담당할 가족도 별로 없어 어쩔수 없이 간병인을 둘 수밖에 없다. 그속에서 병원은 15년동안 운영하던 무료 직업 소개소를 폐쇄하며 열심히 일했던 간병인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본인이 했던 약속조차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기관장은 필요에 따라 약속하고 뒤집어서는 안된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 간병인 조합원들은 병원이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약속파기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병원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관련 진행경과>

일시	진행경과
6월 29일 ~	간병인 처우에 대해 노사 면담 및 실무협의 진행
9월 1일	병원- 일방적으로 무료소개소 폐지를 결정하고 종로구청에 신고필증 반납
4일	간병인 개인에게 통보(9월 4일 우체국 소인)
13일	병원이 업체 신청 마감
17일	업체선정하여 통보계획이었으나 병원장 면담통해 ①병원의 일방적 업체선정 중단 ②노조 요구(무료, 비영리업체 선정/자체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③이후 병원장 면담 통해 확정하기로 함
22일	병원이 약속을 파기하고 업체선정을 진행하려 하여 노조에서 항의와 약속이행 촉구
23일, 24일	“일방적인 업체선정 하지 않겠다” 재확인
26일	병원이 약속과 달리 ‘일방적인 업체선정’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됨
9월 30일	오후4시 병원장 면담예정이었으나 17일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면담 취소하겠다고 불명하고 안나옴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및 병원장 약속 이행추구를 위한

▶철야농성 : 9월 30일~(2층코리)
▶투쟁 기금 모금
▶보고대회 : 늦은 6시30분

○ 지부 일정 ○

10월 9일 : 3/4분기 노사협의회 (2차)

10월 12일 : 고구마 캐기

10월 20일~ 22일

불우환자와 장기투쟁사업장을 위한 바자회

10월 23일 :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

간병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조합과의 약속마저 파기한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인 소개소를 유지하고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2003년 10월 1일 서울대병원장실 앞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방조하는 경찰들

10월 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대병원장을 면담하러 간 간병인대표와 서울대병원지부 간부들을 비롯한 10여명이 청원경찰 경비,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하고, 개 끌리듯 끌려나와 병원장실 밖 계단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여자조합원 한명에 34명씩의 남자관리자들이 다리와 목을 붙잡고 들어 올리면서 잡아 끌어내려는가 하면 경사진 계단으로 협박하게 던지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단식중인 간병인이 실신하여 쓰러지고, 여성간부들이 허리를 다치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당하였고, 서울대병원장실 앞은 이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또한 병원이 요청한 정복, 사복의 경찰들은 이런 과정을 곁에서 방관하는가하면 기사를 사칭하고 낱알이 사진을 찍고 비디오표 촬영을 하는 등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폭력사태를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했다.

막가파 병원장: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조합과의 약속도 휴지조각처럼 저버리더니 이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간부들을 폭행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지난 9월 17일 서울대병원장은 면담을 통해 시설 유료간병인 선정을 중단하고, 서울대병원 무료 간병인소개소 자체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무료 간병인소개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리면서 9월 30일 노동조합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9월 30일 노동조합이 병원측이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장은 핑계를 대며 면담 약속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9월 17일에 한 약속을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와 간병인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철회와 병원장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철야농성에 바로 돌입하였고 10월 1일 아침 간병인 대표 2명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간병인들과 노조간부들이 약속을 지키라며 병원장을 면담하러 가자 병원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남자직원들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골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우롱하던이 이제는 노사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새로운 형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겠다는 병원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하루만에 체결, 앞장서서 시설유료간병인업체를 적극 홍보하는 수간호사들

9월 30일까지 병원은 간병인 무료소개소유지를 계속적으로 천명했고 노동조합에도 이런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병원장 면담을 취소하더니 10월 1일자로 시설유료소개소인 아비스와 유니에스 두 업체를 선정했다. 이는 겉으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척 하며 이미 업체선정을 마무리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긴급하게 수간호사회의를 열어 간병인제도 운영지침을 전달, 오후에는 병동 게시판에 두 업체의 전화번호와 안내문을 게시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수간호사들이 시설유료간병인 소개소의 홍보대사로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노동조합에 접수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일부 수간호사가 "이 가운을 입고는 절대 일 못한다" "병원에서 선정한 유니에스나 아비스 중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겠다" "보호자를 설득해서라도 내보내겠다"라든가,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을 같이 불러서 "유니에스나 아비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에서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들한테서 계속 간병을 받겠다"고 밝히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또한 병원직원들도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훨씬 간병을 잘할뿐 아니라 병원시스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 법률위 자문에 의하면 현재 각 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간호사의 간병인에 대한 탄압행위는 '협박'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이런 사례가 있으면 노동조합 사무실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업체 알고보니 '인력파견용역업체'

유니에스는 간병인 관리 전문업체라기 보다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간호보조업무, 사무보조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면 병원이 왜 공권력 투입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시설유료업체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운영기능직을 계속적으로 감원하고 있는 병원정책과도 맞아 처음에는 간병인 업무를 맡기다가 이후 분당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까지 그 업무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병원측의 옳지 못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서울대병원이 무료로 운영해오던 간병인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시설 유료 간병인소개소를 선정한 것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25년간 환자를 위해 질 높은 간병활동을 해온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둘째, 간병인 및 노동조합과 가진 면담자리에서 노동조합이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자체 운영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노동조합이 무료 간병인소개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자 약속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린 것은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셋째, 지금까지 15년 동안 서울대병원이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환자·보호자들도 만족해왔는데, 갑자기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폐쇄하고 이중착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시설 유료 간병인소개소로 넘기려는 것은 서울대병원이 담당해야 할 공익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병원장은 더 이상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 '무료간병인소개소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무자비한 폭력과 노동조합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죄하라!!

병원측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번복한것에 항의하여 간병인 대표 2명이 지금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병원로비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무료 간병인소개소 유지를 위한 투쟁에 대해 환자·보호자들과 다른 보건의료노조 지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병원장이 약속파기, 생존권 박탈, 공익성 훼손, 폭력행사 등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라며, 시설 유료 간병인소개소를 끌어들이지 말고 노동조합이 자체로 운영하는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정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폭력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철회 및 병원장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2일째)

9월 5일부터 시작된 병원측과의 하루하루 숨막힌 투쟁으로 지칠대로 지친상태에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한 간병인들은 두통, 저혈당 증세, 고령의 나이, 10월 1일 오전 폭행으로 인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육체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여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 1층 현관로비에서 단식농성중이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방문과 아낌없는 지원 바랍니다.

간병인 투쟁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구조조정 저지', '노사관계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폐지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서울대병원지부와 간병인 조합원들은 하루도 쉴 틈없이 병원장 항의방문 및 농성, 로비 철야농성, 시계탑앞 시위, 환자보호자 서명운동 등 투쟁을 해 왔다. 그러나 병원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병원장의 약속 번복, 폭행사태에 즈음하여 급기야 나이 많으신 간병인 조합원 대표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오늘로 4일째에 접어든다.

▶ 구조조정의 또 다른 얼굴!! 그 다음 순서는?

현재 서울대병원은 보수, 경비, 청소, 소아급식까지 이미 용역으로 넘어간 상태며 지금도 용역 및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병원에서 선정한 사설 간병인 업체 중 유니에스는 인력파견용역업체이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들어가 있는 유니에스는 간호보조업무, 사무보조업무까지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병원이 왜 사설유료업체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운영기능직을 계속적으로 감원하고 있는 병원정책과도 맞아 처음에는 간병인 업무를 맡기다가 이후 분당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까지 그 업무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병원은 구조조정의 함정으로 조금씩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를 방관하고 넘어가면 오늘의 간병인 투쟁이 내일의 내 생존권에 대한 투쟁이 될지 모른다.

▶ 무너진 노사 신뢰의 원칙! 폭행까지 입심는 서울대병원의 치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9월 1일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사무소를 폐지한 것은 간병인 처우개선에 대한 노사협의 기간 중이었다. 거기 에다 병원은 급기야 9월 30일 병원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곧이어 17일에 한 병원장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였다. 10월 1일에는 간병인들과 노조간부들이 비영리 간병인 무료소개소 선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며 병원장을 면담하러 가자 병원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남자직원들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노사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겠다는 병원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 간병인 무료소개소 유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한걸음!

웃돈 거래 및 비리의 온상인 사설 영리 간병인업체의 폐해는 그대로 환자보호자에게 돌아간다. 환자보호자들이 간병인투쟁을 100%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병원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운영하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마저 없애고 사설 영리업체를 들여와서 의료의 공공성을 역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간병인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다. 전국의 2만 간병인노동자들은 환자와의 일대 일 계약관계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다. 인간존중을 내세우고 있는 병원이 힘없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간병인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서 간병인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무기한 단식농성 (4일째)

하루 하루가 더디게만 갑니다.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는 조합원들은 간병인 조합원대표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투쟁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들고 온 우유를 슬며시 밀어놓고 돌아갑니다.

연대 간병인조합원들의 투쟁소식을 듣고 응원하러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들, 민주노동당 당원들, 인권과 사회공공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과 공무원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중부지구 간부 등등 정말 반가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간병인조합원들의 가장 큰 힘인 환자 보호자들도 잊지 않고 오셔서 격려도 해주십니다. 간병인 조합원들은 단식으로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힘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간병인과 노동조합만의 외로운 투쟁은 아닙니다.

희망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병원이 현장에서 우리 간병인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밀어내려고 해도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서울대병원 간병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간병의 수혜자인 환자들이 서울대병원 간병인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설 간병인소개소 소속의 간병인들도 속속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내일이 보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꺾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 ▷ 출퇴근시 1층 현관 단식농성장을 방문하고 지원합시다!!
-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홍보에 적극 협조합시다!!

※현재 각 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에 대한 탄압은 "협박"과 "업무방해"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은 왜, 간병인 소개소를 사설 유료업체로 넘겼는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서울대병원이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환자·보호자들도 만족해왔다. 그런데 10월 1일자 병원장 명의의 유인물을 보면, 마치 환자서비스를 위해 사설 유료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의 의도는 '병원은 간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간병인제도는 간호사 등 병원인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것으로, 가래뽑기, 튜브로 식사, 무의식환자 간호 등 간호와 직접 연관된 많은 부분을 맡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간병인 운영은 병원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나 '귀찮다'는 핑계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사설업체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실례로 사설 간병인 유료업체가 들어온 지 하루도 안되어 간병인이 환자를 놔두고 가버리는 등 벌써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설 간병인 유료업체 선정은 서울대병원이 담당해야 할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원장님! 당신의 거짓 약속으로 60세 노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9월 1일, 병원의 일방적인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쇄 이후 노동조합과 간병인 조합원들간의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병원의 거짓 약속과 부도덕한 경영 방침으로 60세의 간병인 조합원이 현재 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 5일째 되는 날,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있어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의 건강검진 결과 "현재는 위험하진 않다. 그러나 60세라는 나이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 언제 상태가 심각해질지 모른다. 이미 심부전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그러나 간병인조합원은 "목숨을 걸고 시작한 단식을 이 상태에서 멈출 수가 없다" 며 오히려 바라보는 이들을 격려하며 투쟁의 의지를 보인다.

집 앞에 개가 짖어도 나와보는 법, 그러나 한 인간이 대화를 요구하며 7일째 단식을 하고 있어도 병원은 어떠한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대화의 물꼬조차 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 기회에 노조에 대한 양갈음이라도 하려는 듯 병동에 지침을 내려 일부 관리자들이 간병인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보호자를 종용하여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과연 인간중심, 환자중심이란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10월 7일(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폐지 철회와 병원장 약속이행추구를 위한 결의대회는 생존권과 인권 탄압에 대한 투쟁이다. 그리고 오늘 너의 투쟁이 아닌 내일의 우리의 투쟁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지부 전 조합원이 뜻을 모아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이 투쟁에 함께 하자.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와 병원장 약속 이행 추구를 위한

결 / 의 / 대 / 회

- ▶ 일시 : 10월 7일(화) 오후 6시
- ▶ 장소 : 시계탑 앞
- ▶ 주관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1)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구성작가,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에서 단식농성 7일째를 진행하고 있는 간병인 조합원들 역시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지부에 속해 있는 조합원으로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병원은 사설유료간병인 소개소 유지를 위해 기존에 일하던 서울대병원무료소개소 간병인 조합원들에게 "이 가운을 입고는 절대 일 못한다" "병원에서 선정한 유니에스나 아비스 중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겠다" "보호자를 설득해서라도 내보내겠다"라는등 인간중심 브랜드 파워 1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단지 서울대병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은 아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해있는 간병인들의 생존권보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병원을 포함한 병원사업장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투쟁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등 고용형태로 야기되는 노동자들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

현장 고발!!

- 공공 병원인가? 사실 간병인업체 홍보 대행사인가?

10월6일
82병동

환자의 약을 줄 때 사실 간병인 유료소개소안내지와 함께 나누어주었다. 뒷면에는 "아비스"라는 간병인 상호까지 버젓이 찍혀있는 안내지였다. 이것은 특정한 영리기업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공공병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미 노조는 병동내에서 악착같이 간병인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임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병원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간호부는 이미 환자 보호자들이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을 원함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찾아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길 바란다!!

<증거 사진>



서울대병원장의 간병인에 대한 거짓약속·폭행 등 인권탄압,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그리고 함께 해야 할 간병인 투쟁!!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장은 공공병원의 기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간병인노동자 생존권 박탈과 거짓약속, 폭행을 비롯한 극심한 인권탄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월 7일 서울대병원장을 서울대병원 간병인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해 인권력 침해 및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 공정 거래 위반 등 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현장에서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에 대한 비난과 문제 제기도 있다.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은 지난 10여년간 독보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을 해오면서 굳어진 권력으로 중환자를 기피하고, 돈을 더 요구하거나 간병인의 역할을 넘어서 행해졌던 월권행위 등을 서로 인정하고 이를 정화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간병인제도가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병원 입원료에는 간병료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따로 간병인을 썼을 때 이중적인 의료비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들이 업체로부터 중간착취를 당하고 저임금과 고된 노동조건과 지도 교육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사설 유료간병인의 대체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며 서울대병원직원도 아닌 간병인의 고용안정 투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본다.

첫째, 간병인도 서울대병원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다. 이들의 고용안정, 즉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간 차별을 통해 경쟁, 분열시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이윤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비정규직은 급속히 양산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비보조원, 간병인 등은 특수고용직이라 하여 실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등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과 각종 불이익 속에 일하며 인간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의 간병인도 하루 12시간 일하고 3만원(24시간 5만원)을 받고 있다. 한달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1백 50만원의 돈을 벌수가 있다. 이것도 간병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둘째,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다. 함께 투쟁해야 한다. 특히, 가까이 있는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투쟁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또한, 간병인 조합원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우리와 같은 노조 같은 조합원이다.

셋째, 서울대병원을 올비로 세우기 위해 투쟁을 임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는 병원,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야한다.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에서는 간병인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간병인조합원과 함께 병원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속에서 병원은 긍정적 검토를 이야기 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일인만구도 없이 9월 1일자로 갑자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후 9월 5일자로 간병인조합원에 게 통보를 했다. 그 후, 간병인들과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의 결사 투쟁으로 9월 30일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간병인 무료소개소 운영에 대해 약속했다. 10월 1일 이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간병인 유료사설소개소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병원관리자를 동원하여 선전하고 무료소개소 간병인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병원의 도덕과 상식, 노사신뢰를 짓밟는 행동은 지난 1999년 소아급식과를 외부위탁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단순한 간병인에 대한 태도로 생각할 수 없다. 간병인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노사관계에 돌을 던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간병인 고용안정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 인력 확보가 핵심이 될 내년 2004년 투쟁의 전초전이기도 한다. 함께 투쟁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02병동 환자가 간병인에게 쓴 글입니다. 지금 병동에서는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환자 곁에서 살뜰하게 돌보아주던 간병인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간병인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환자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악성 치료로 가지고 "치료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의사까지 "퇴원을 빨리 시켜야겠다" 고 하는 등 협박과 진료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의료인의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 도덕도 없는 이들은 의료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이들은 병원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10월 9일 이 환자의 간병인은 수간호사에 의해 환자가 돌봄을 당해 끝내 간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의 한 예일 뿐입니다.

10월 7일 오후-

아침에 간호사 한 사람이(안경쓴) 간병시 고용이 잘못됐다고 아주머니를 해고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간호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누나가 오후에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102호 ***

10월 8일 오전-

오늘 아침 누나가 수간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바꿀수 없다고 했대요.

수간호사가 어제 자기 딸대로 새사람을 지정해서 오늘 왔는데 내가 안된다고 했어요.

수간호사가 나를 첫날부터 다인실 주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집부린다고 섭섭하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협조 못할수도 있다고

엎포를 놓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갔어요

누나한테 다시 전화가 올거예요. 그 때 통화하세요.

통화하시면 오늘 병원에 몇시에나 오실 수 있는지 여쭙 봐 주세요.

우리 노동조합 10월 일정입니다!!

고구마 캐기	10월 12일(일)!! 준비됐나? 다 함께 여주로 출발~♪
장기투쟁사업장을 위한 바자회	10월 20일(월) ~22일(수) 즐거운 장터, 동지들을 위한 자리라 더 기쁜 그날!!

서울대병원은 노사 합의한 인력충원 이행 및 필수 인력 충원하고 불성실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라!

2003년 임단투가 마무리되고 현장에서는 지난 7월 노사간 합의한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충원된 인력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

- ▶ **치과 수술장에서는** 합의한 인력이 채워지자마자 evening 근무를 새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필수 인력 충원이 되자마자 수술시간을 늘리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전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필수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 ▶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의 부서에서는** 강남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뒤로해도 건증에서 들어오는 수탁검사 의뢰가 실제 하루에 50여건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업무에 대한 인력 대책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보건직 6급 철폐는 지난 2001년 노사 합의되었고 2003년 공채 임용자가 발령전에 재직중인 현직원이 먼저 승진한다"라고 약속했으나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에도 구체적인 발령계획도 없다.
- ▶ **권역별응급의료센터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규모 확장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 훈련함에 있어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운영기능직 운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병원이 운영기능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의 계획을 밝힌 바에 따라 부서 이동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이동, 그리고 빈 정규직 자리를 용역화, 부서 아웃소싱등 경영 합리화라는 그럴듯한 말들로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아 경비는 이미 에스택으로 넘어 갔고 경비업무 전체를 점차적으로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뿐인 노사합의, 그리고 경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망각해가는 병원의 만행이 계속된다면 조합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도덕과 상식, 노사신뢰를 짓밟는 행동은 서울대병원의 노사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9일 간병인투쟁을 핑계를 대며 무산시킨 노사협의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돈많은 강남 지역에서 건강증진센터 개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이다.

10월 14일 서울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건강증진센터'를 개원했다. 병원은 강남 건강증진센터 개설 목적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현재 돈많은 사람들은 어디서든 초특급으로 고급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실제 돈이 없거나 의료비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의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를 볼 때 서울대병원이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예방의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건강검진이 돈벌이가 되고 가장 돈벌이가 잘 될 수 있는 강남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하다. 실제 이것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은 민간병원처럼 수익 사업인 강남에 건강증진센터 개원이 아닌 실제 종합건강검진이 어려운 곳이나 의료의 소외계층인 빈민층에 대해 건강검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실상 서울대병원만으로 이런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와 지방 의료원과의 적극적 연계를 고민하여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우수 재벌 병원과 경쟁하는 병원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하는 병원이다. 바로 이름에 걸맞게 공공병원으로서 그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바로 세워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 의해 지켜져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노사 모두가 함께 개선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지부 7대 대의원 선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학교병원지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 지부 제7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역이 될 제7대 대의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의원후보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열람 : 10월 23일(목) - 10월 31일(금)

- 후보 등록방법 : 대의원에 입후보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마감시간 전에 조합사무실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등록서와 입후보 추천서는 조합사무실에 있습니다.)

2) 대의원 선거 기간 : 11월 1일(토) - 11월 4일(화)

- 개표방법 및 시기 : 투표기간중 선거구별 투표마감 후 해당 선거구 및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표합니다.



과모임 합시다.

10월 과모임은 지부 7대 대의원 선거, 현장에서 바라는 주5일제, 민주노총 하반기 3대투쟁 요구(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악 중단, 사용자 대항권 중단)과 현안 문제인 간병인 투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 · 여성 · 보건의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문제해결과 공공성확보 투쟁에 함께 나서다.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병원이 책임지고 관리해야함이 당연하다. 게다가 간병인제도가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생겨난 의료서비스로써 마땅히 의료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함을 노동조합만이 아닌 시민단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시민 연대, 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서울대병원 간병인 공동대책위원회를 준비중에 있다. 그리고 금일(17일)은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가 함께 연대하여 준비중인 이번 투쟁을 포함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공대위 발족을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있다. 이제 이 간병인 투쟁이 사회적 제도의 문제이며 노동자와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야할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탄압 문제가 접수되었고 담당자가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간병인 탄압 사례 : 모 교수가 "서울대병원 무료 소개소 간병인을 내쫓지 않으면 퇴원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한 환자는 충격으로 고열에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주치의까지 나서서 간병인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교수는 환자에게 "간병인이 노동조합 간부라서 내 입장이 곤란하다." 라며 간병인과 환자를 압박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가지고 협박하는 비윤리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료인들은 이미 의료윤리를 저버리고 의료인의 양심을 팔아 버린 것이다.

15일 현장순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병원이 지정한 간병인 유료소개소외에도 이미 많은 유료 소개소 및 개인이 간병인 업무를 하고 있다. 수간호사들이 간병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유독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들만을 탄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런 몰상식한 간병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에 맞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간병인 문제해결과 서울대병원 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기자회견

▶ 10월 17일 이른 10시 30분 / 시계탑 주차장

☛ 서울대병원 간병인무료소개소 폐지 철폐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2차)

▶ 10월 17일 늦은 5시 30분 / 시계탑 주차장

주관 : 시민사회단체 / 주최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전국노동자대회

10만이 간다!

11월 9일, 10만 노동자대회!

비정규직 확산, 국민연금 개악, 사용자 권한 강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철폐, 국민 연금 개악중단, 사용자 대항권 저지를 위해 10만 명이 모이는 노동자 대회를 반드시 성사 시킵시다. 노동자의 힘과 투쟁의 결의를 보여줍시다!!

제4-24호 2003. 10. 31(금)	신 새벽	구조조정 저지!! 공공의료 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http://snuh.nodong.org snuh@snuh.nodong.org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얼마나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것인가?

1970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그리고 고 배달호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2003년, 또 다시 열사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10월 들어 연 2주간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지회장의 129일의 고공 농성중에 자살, 24일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분신기도, 그리고 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 본부장의 분신기도...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던지는 투쟁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날 것인가?

얼마전 정부는 "로드맵" 혹은 사용자 대항권이라 불리는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발표하였다. 자본가들은 부당해고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직장폐쇄도 할 수 있고 무노동 무임금은 기본, 파업하면 대체근로 시키고 노동조합의 재정이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개입하려고 한다. 가진 자들의 법의 테두리안에서 노동자들은 묶어두고 단결의 자유도 파업의 자유도 모조리 거세해 버리겠다는 것이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와 자본은 '대기업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정리해고가 쉬워져야 비정규직의 생존권과 고용이 보장된다', '노동귀족이 문제다'라는 등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을 쉬지 않고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그 속에서도 다시 비공식 특수 고용노동자로 나뉘고 노동계급의 분열로 단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갈수록 노동자들을 조이고 파고드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밀려서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단지 사태를 수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동지의 죽음을 목격할는지 모른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또 다시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항거한 동지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노동 탄압없는 세상,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

가자!! 전국노동자대회로!!

▶ 일시 : 11월 9일, 늦은 3시 시청앞

비정규직 확산, 국민연금 개악, 사용자 권한 강화...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피를 쥐어짜는 정부 개악안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철폐, 국민 연금 개악중단, 사용자 대항권 저지를 위해 10만 명이 모이는 노동자 대회를 반드시 성사 시킵시다. 노동자의 힘과 투쟁의 결의를 보여줍시다!!

간병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서울대병원장!!

▶ 박용현 병원장!! 간병인 12명에게 진료방해 금지등 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제출!!
- 병원 반경 1km 접근시 1회에 1인당 천만원 요구!! 간병인 농성장소에 전기도 끊어...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등으로 노동자들이 연일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장도 간병인들에게 병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탄압의 칼날을 내밀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대병원장의 요청으로 진료금지 방해등 가처분 신청서가 12명의 간병인조합원에게 떨어졌다. 간병인조합원들에게 병원으로 출입금지 및 병원 반경 1km 접근 금지,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부착금지, 언론에 서울대병원 간병인에 대한 글이나 문건 공표 금지, 집회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인 각 일천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하루 벌어 사는 간병인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생존권사수를 위해 병원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간병인간부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야 이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병원의 탄압은 심각하다.

병원은 더 이상 간병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지금 병동에서는 "의료시설 업체의 간병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은 "병원이 왜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시설업체만 지정하지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병원장은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노동,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1차로 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면담을 요청하였다.

알아둡시다!!

함께 가요!! 강화도 기행!!

4/4분기 조합원 하루교육은 강화도로 갑니다. 영웅의 역사가 아닌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 민중의 역사와 투쟁을 배워 봅시다. 조합원 하루교육은 근무로 인정됩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 ▶ **일시: 11월 19일(수)~ 21일(금)**
- ▶ **일정: 추후 공지**

일하고 배우면서 함께 열어가는
우리들의 미래

13기 노동교실

- ♣ **일시: 11월 6일(목)~ 12월 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 **신청: 11월 5일(수)까지**
노조 사무실 (☎ 3440)

[지부 7대 대의원 선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학교병원지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11월 1일(토)에 지부 7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역이 될 제7대 대의원을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대의원 선거 기간: 11월 1일(토) ~ 11월 11일(토)

● **개표방법 및 시기: 투표기간중 선거구별 투표마감 후 해당 선거구별 투표함은 지부 사무실에서 개표**

제4-25호
2003. 11. 6 (금)

신 새벽

구조조정 저지!!
공공의료 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

<http://snuh.nodong.org>
snuh@snuh.nodong.org

전국노동자대회!! 10만이 간다! 11월 9일 / 시청암

**서울대병원지부는 늦은 2시 30분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전국 노동자대회로 갑니다!!
직접 시청으로 오실 분은 서울대병원 깃발 아래로 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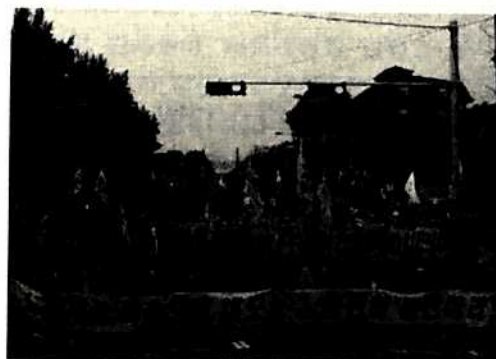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

스물 두 해의 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성실히 일했건만 일당은 14시간 노동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되는 50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건강을 해치는 열악한 환경,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은 지금까지 그들에서 그들로 전전했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을 다 바쳐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탄압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또 다시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있다. 전태일 열사를 이어 산화한 수많은 노동 열사와 민주 열사의 명목을 빌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때까지 노동자의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살아서 함께 투쟁하자!!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한 추모 주간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988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전국 노동자 5만여명이 집결한 대회는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와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각 지역에 흩어져있던 민주노조운동을 전국 조직의 건설로 나아가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노동운동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 11월 12일은 민주노총 2차 총파업입니다!!

국민연금 개악중단, 비정규직철폐, 사용자 대항권 저지를 위해 노동자의 힘과 투쟁의 결의를 보여줍시다!!
간부·대의원들은 기본으로 참여하고 조합원들도 최대한 총파업에 참여합시다.

공공병원으로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서울대병원!!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을 앞선업체 이윤보장의 도구로 만들지 마라!!

- 웃돈 요구하는 비리의 온상! 사설간병인업체가 공신력 있고 간병의 질이 높다구요?
- 가처분 신청으로 간병인 올리고, 왜곡된 선전물로 직원과 환자들을 우롱하다!!

11월 5일 병원은 다시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2”이라는 유인물을 병원 곳곳에 유포했다. 병원은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 5만원이라는 돈을 벌며 하루 살아가는 간병인에게 병원을 출입하거나 1km근처에 오면 1회당 천만원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 의해서 공개 채용되어 직원 아닌 직원으로 10년, 15년동안 서울대병원을 믿고 간병업무를 해왔던 간병인에게 공공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간병인조합원들이라고 서울대병원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힘으로 굴복시키려하고 있는 행위는 부도덕함을 넘어 야만적인 처사이다. 게다가 37일째 철야농성과 현관 앞 농성으로 지켜있는 4~50대 여성 간병인 조합원은 추운 밤을 보내는 2층 농성장에 전기조차 끊어 이곳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인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 간병인 조합원들을 노조가 지정한 특정업체라며 왜곡을 하고 있다. 병원이 간병책임을 저도 모자랄 판에 88년 서울대병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공개채용 후 관리 교육해 왔던 간병인들을 유료 사설 업체로 쫓아내기 위해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설간병인 소개소의 폐해를 직접 겪었던 간병인 조합원들은 이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기에 고되고 힘든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은 사설 영리 간병인업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는 있는가? 병원이 선정한 아비스에서 일했던 간병인의 사례이다. 아비스 사무실에서 나온 관리자가 간병환자 연결을 무기로 “티셔츠를 팔아 달라,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원금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 심지어 손자 돌까지 챙기도록 강요받는다. 협회에 가입하고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월회비 5만을 내야하고 몇 달을 일을 못하다가 다시 일을 해도 밀린 연회비 월회비를 다 내야한다. 회원수만 늘면 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환자에게 또 다른 간병인을 소개받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간병소개업은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관리할 때마다 사설 영리업체가 간병의 질이 높다고 얘기하는 서울대병원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기만이다.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환자와 중간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간병인들이다. 병원은 더 이상 간병책임을 환자와 사설 업체에 넘기지 말고 무료소개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인 소개소 확보투쟁은 왜곡된 의료체제로 인해 파생된 간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방법이며 오히려 서울대병원은 간병책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이 중 의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간병인업무의 책임을 정부와 의료기관이 질 것을 요구하며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간병인 투쟁 일정

※ 매주 목요일 정오에 2층 로비에 서 피켓 시위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 서울본부 간병인 투쟁승리 결의대회 : 11월 12일(수)
- ▶ 공청회 : 11월 14일(금) 늦은 2시 / 국회 헌정기념관
- ▶ 간병인 투쟁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주점
 - ※ 11월 14일(금) 시간과 장소는 티켓 참조

부유층 모시고, 간병인 내치는 서울대병원!!

지난 9월14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임대료 월 2억원에 관리비만 8700만원이 드는 초호화판 건강검진센터를 개설했다. 이른바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가 그것이다. 검진센터는 '예방의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 검진센터의 목적은 누가 봐도 돈벌이를 위한 '건강검진 상품' 판매가 목적이다. 건강검진 주력 상품인 '50대 헬스케어 건강검진'의 비용이 88만원에서 140만원이다. 어떤 시민이 한번의 건강검진에 120만원을 들이겠는가 여기에 일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60대 남성의 경우 320만원이고 여성은 350만원이다. 돈이 없어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야 하는 사회에서 대표적인 공공 의료기관이 하는 일이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검진센터 건립인가?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을 한해에 수백억원씩 지원받는 대표적 공공병원이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만 170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적정 진료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의 모범이 돼야 할 서울대병원이 하는 검사 항목을 보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매우 희박한 항목 투성이다. 암의 조기 발견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양표지검사, 20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대장경 검사는 물론이고,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고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암을 일찍 발견하겠다고 건강한 사람에게 '대장/복부/흉부/골반'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한다. 이런 검사가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여러 부위의 단층 촬영은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은 반면 과다 방사선 노출로 인해 암 발생에 기여할 수도 있다.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를 벗어난 일은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6인실 이상의 병실을 50% 이상 갖추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의 다인 병실 비율을 가지고 있어 '불법적으로' 병실 차액을 챙기고 있다. 게다가 그 병실료마저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매우 높다. 그뿐인가 환자들이 선택할 수도 없는 진료항목에 '선택진료' 명목으로 특진료를 부과하고 진료수익에 기초한 교수 성과급제를 도입해 제도적으로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이윤동기를 부여한다. 사스가 문제가 될 당시 서울대병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정병원을 거부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노동자들을 무엇으로 아는지 산재지정 병원조차 거부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10여년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폐쇄하였다. 병원 당국이 기획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서울대병원 직원”이라고 사명감을 주지시켜오던 간병인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무료 소개소를 폐쇄하고 사설 업체에 간병인 소개 업무를 넘겨버린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서울대병원이라고 해서 없으리라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간병업무는 원칙적으로 병원 쪽이 해야 할 일이다. 전 세계에서 간호와 간병을 나누는 것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며, 그나마 일본은 간병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간병업무를 병원에서 책임을 저도 모자랄 판에 무료 소개소마저 없애버리는 행위는 '비정규직' 간병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간병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앞선업체의 이윤을 환자와 간병인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350만원짜리 호화판 건강검진을 도입하느라 강남에 수십억원을 들여 검진센터를 지으면서 연간예산 2400만원을 절약하려고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서울대병원의 모습이다. 서울대병원이 다른 병원에 주는 파급력을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는 하루 24시간 일해서 5만원을 벌기 위해 월요일에 아이들 일주일치 먹을 밥과 반찬을 해주고 토요일 퇴근을 했던 50~60대 초로의 아주머니들이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다시 열어달라고 차디찬 병원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이분들의 대표는 단식 끝에 심부전이라는 병을 얻어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필자가 근무하는 동네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다.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이 이 아주머니 가정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강남에 호화판 검진센터를 여는 것이란 말인가 나는 어쩔지않은 동문으로서 이분들을 보면서 한없이, 한없이 부끄럽다.

- 우석균 /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